
- 청주시립도서관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 -

정책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0. 12.

청주시의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제 출 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청주시립도서관 운영실 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
정책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책임연구자	윤 송 현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정책위원
공동연구자	안 찬 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서 동 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연구보조원	진 제 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조 선 경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차 례〉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1-1-1. 청주시의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9
1-1-2. 연구 영역의 필요성	9

1-2. 연구 과제 10

1-3. 연구 수행 과정

1-3-1. 기초 자료 조사	10
1-3-2. 청주시 도서관 현장 조사	10
1-3-3. 국내 비교 도시 조사	11
1-3-4. 해외 사례 조사	11
1-3-5.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의 한계	13
1-3-6. 중간 보고	13
1-3-7. 보충 조사	13
1-3-8. 최종보고회	13

2. 도서관 평가의 기준

2-1. 왜 도서관은 중요한가?

2-1-1.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14
2-1-2. 도서관은 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가?	15

2-2. 도서관은 어떻게 변해왔나?

2-2-1. 유럽의 도서관 흐름	16
2-2-2. 우리나라의 도서관 흐름	17

2-3. 어떤 도서관이 필요한가?

2-3-1. 새로운 도서관은 왜 필요한가?	18
2-3-2.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19

3. 청주시 현황

3-1. 청주시의 개요 20

3-2. 청주시 인구 현황 21

4. 청주시와 공공도서관 현황

4-1. 청주시 도서관 역사

4-1-1. 지방자치 이전 청주시립도서관	22
4-1-2. 충청북도 교육청 도서관 시대	23
4-1-3. 지방자치 이후 청주시립도서관 건립	24
4-1-4. 도서관 행정 조직 변화	25

4-2. 청주시 도서관 현황

4-2-1. 청주시 공공도서관 현황	26
4-2-2. 대학도서관 등 현황	28
4-2-3. 작은도서관 현황	29

4-3.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현황

4-3-1. 도서관수 및 봉사인구수	30
4-3-2. 장서수	30
4-3-3. 도서관 예산	32
4-3-4. 도서관 등록자 및 이용자수	35
4-3-5. 도서관 대출자수 및 대출권수	36

5. 도서관에 대한 평가

5-1. 도서관 입지의 문제

5-1-1. 도서관 수는 적당한가?	39
5-1-2. 도서관 입지가 중요하다.	40
5-1-2. 도서관 입지 평가의 기준	41
5-1-3. 도서관 권역별 인구 현황	42
5-1-4. 청주시립도서관에 대한 입지 평가	46
5-1-5. 도서관 입지 평가에 따른 의견	46
5-1-6. 도서관 신설에 대한 의견	48
5-1-7. 해외사례	49
- 주민생활의 중심에 있는 무사시노플레이스 / 49	
- 도서관 위치 조정 성공 사례, 영국 아이디어스토어 / 50	
- 도시 재생의 모델, 덴마크 헤아닝도서관 / 51	

5-2. 도서관 건축 과정

5-2-1. 청주시 도서관 건축 과정	52
5-2-2.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만들기	52
5-2-3.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권고	53

5-2-4. 해외사례	54
- 전체 세대 1회의 의견 수렴을 한 영국 아이디어스토어	
- 시민과 함께 만든 오부세초 마치노테라조	
5-2-5. 국내 사례	55
- 공간혁신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주 꽃심도서관 ‘우주로1216’	
- 총괄계획관을 선임하여 도서관을 건축한 충남도서관	

5-3. 공간 구성

5-3-1. 열린 공간의 장점과 활용	56
5-3-2. 청주 시립도서관의 공간 구성 현황	57
5-3-3. 자료실의 비율	58
4-3-4. 학습실 문제	60

5-4. 도서관 인테리어와 가구

5-4-1. 새로운 도서관 전략 - 제3의 공간, 사회적 거실, 창조의 공간	61
5-4-2. 도서관 가구	62
5-4-3. 국내 사례	63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도서관들	
5-4-4. 조명	64

6. 도서관 자료 관리

6-1 도서관 자료 구입

6-1-1. 자료 관리 매뉴얼	65
6-1-2. 청주시 자료 관리 현황	65
6-1-3. 자료관리 위원회	66
6-1-4. 희망도서 지역 서점 구입, 책값반환제 도입	66
6-1-5. 권역별 장서 특성화의 문제	67

6-2. 장서 현황

6-3. 정기간행물 수서

6-3-1. 정기간행물 수서의 의미	70
6-3-2. 정기간행물 수서 현황	71

6-4. 자료 제적

6-4-1. 자료 제적 필요성	72
6-4-2. 청주시립도서관 자료 제적	72

6-5. 통합 보존서고 설치

6-5-1. 도서관별 보존서고 운영 실태	74
------------------------------	----

6-5-2. 통합 보존서고 필요성	74
6-5-3. 통합보존서고의 대안	75
6-5-4. 해외사례	75
- 북돋을 운영하는 제임스헌트도서관	
6-6. 지역 자료 아카이브	
6-7-1. 지역 자료 아카이브 필요성	76
6-7-2. 청주시 기록관과 민간기록 자료 수집	76
6-7-3. 다른 지역 민간기록자료 수집	76
6-7-4. 도서관 중심으로 기록자료 관리 체계 수립 필요.	77
7. 운영 인력	
7-1. 사서는 왜 필요한가?	
7-1-1. 사서의 역할	79
7-1-2. 유럽에서 도서관 사서의 역할	80
7-1-3. 일본 시가현 도서관의 변화	80
7-2. 시립도서관 운영 인력	
7-2-1. 청주시립도서관 운영 인력 현황	81
7-2-2. 관리직의 문제	82
7-2-3. 공무원직의 문제	83
7-2-4 다른 지역 사례 - 보조사서제 운영	83
7-3. 사서 운영 현황	
7-3-1. 도서관수 증가에 따른 사서수 변동	84
7-3-2. 다른 도시와 비교	85
7-3-3. 적정 사서 인원 산출	86
7-4. 사서 교육	
7-4-1. 사서 교육의 필요성	87
7-4-2. 청주시립도서관 사서 교육 현황	87
7-4-3. 기타직의 직원 교육	87
8. 도서관 서비스	
8-1. 북스타트와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8-1-1. 북스타트 운동의 필요성	88
8-1-2. 우리나라의 북스타트 운동 현황	88
8-1-3. 청주시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	89

8-1-4. 북스타트 사업으로 복귀의 필요성	89
8-2. 청소년, 청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8-2-1. 자라면서 책에서 멀어지는 세대	90
8-2-2.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90
8-2-3. 다른 지역의 사례들	91
8-2-4.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	91
8-3. 상호대차서비스 및 타관 반납 서비스	92
8-4. 기관 협력 서비스	
8-4-1. 지역내 학교와의 관계	94
8-4-2. 교육청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 연결	95
8-4-3. 대학도서관과 협력	95
8-4-4. 병원도서관 지원	95
8-4-5. 작은도서관 지원	96
8-5 지식정보 취약 계층 대상서비스	
8-5-1. 장애인 서비스	98
8-5-2 노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100
8-5-3. 다문화 서비스	101

9. 디지털 시대 정보서비스

9-1. 도서관 디지털화 도입	
9-1-1.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구축	103
9-1-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04
9-1-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104
9-1-2. 모바일 앱 및 SNS 개발	104
9-2. 디지털 자료 서비스	106

10. 도서관 현장 점검

10-1. 도서관별 현황.	
10-1-1. 청주시립도서관	109
10-1-2. 청주기적의도서관	110
10-1-3. 옥산도서관	111
10-1-4. 흥덕도서관	112
10-1-5. 신울봉어린이도서관	113
10-1-6. 청원도서관	114
10-1-7. 상당도서관	115

10-1-8. 서원도서관	116
10-1-9. 오송도서관	117
10-1-10. 오창호수도서관	118
10-1-11. 오창도서관	119
10-1-12. 강내도서관	120
10-1-13. 금빛도서관	121
10-2. 사서 및 이용자 그룹 인터뷰	122
10-2-1. 청주시립도서관	120
10-2-2. 상당도서관	122
10-2-3. 금빛도서관	123
10-2-4. 오창호수도서관	124
10-2-5. 청원도서관	125
10-2-6. 오창도서관	126
10-2-7. 오송도서관	127
10-2-8. 흥덕도서관	128
10-2-9. 강내도서관	129
10-2-10. 옥산도서관	130
10-2-11. 신울봉어린이도서관	131
10-2-12. 서원도서관	132
10-2-13. 청주 기적의도서관	133
10-3. 중간보고회 의견 정리	137
10-4. 최종보고회 의견 정리	139
 11. 청주시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 제안 1 > 청주를 대표할 직지도서관을 만들자	144
< 제안 2 > 청주 도심에 청소년도서관을 만들자	144
< 제안 3 > 시립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추진	145
< 제안 4 > 열람실 자료를 반으로 줄이기	146
< 제안 5 > 사서들이 움직이는 도서관	147
< 제안 6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도서관	148
< 제안 7 > 라키비움 만들기	149
< 제안 8 > 디지털 도서관서비스 구축	150
< 제안 9 >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개선	151
< 제안 10 > 고령화 시대 도서관서비스 구축	152
< 제안 11 > 도서 대출을 확대하자 !	153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배경

1-1-1. 청주시의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 청주시의회에는 2010년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한 의원 연구모임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약칭 ‘도사모’)」이 있고, 이후 매년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도서관과 관련한 현안 토론회, 도서관 정책 비교를 위한 타 시도 견학, 도서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2020년에는 이재숙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성택(3선), 박용현, 정우철, 남일현, 김용규(이상 재선) 유영경, 최동식, 박완희, 박노학(이상 초선)이 참여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지방의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통한 정책 연구 용역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사모’에서는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청주시 공공도서관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이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함.

1-1-2. 연구 용역의 필요성

- 청주시는 2002년 청주시립도서관을 개관한 이후 꾸준히 도서관을 확충하였고, 2014년 청원군과 통합으로 도서관이 늘어나 2020년 10월 기준 총 13개 시립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가경동에 가로수도서관, 내수읍에 내수도서관을 건축하고 있음.
- 20년간 시립도서관을 꾸준히 확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2011년부터 「청주시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에 제2차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
- 기 수행된 도서관 발전 계획은 주로 도서관 이용 현황과 사업 수행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하여, 현장의 도서관 문제와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도사모’에서는 청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13개 청주시립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서관에서 제기되는 현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도서관 발전을 위해 집합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2. 연구 과제

- 1) 청주시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 대상 : 청주시립 공공도서관(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산하 13개 도서관)
 - 방법 : 문헌조사, 통계조사, 현장 조사 등
- 2) 다른 도시 도서관 운영 사례에 대한 방문 조사 : 전주, 김해, 파주, 의정부 등
- 3)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에 대한 집단 면접 조사
- 4)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외국의 새로운 도서관 운영 사례 조사
 - 도서관 관련 단체, 매체 및 도서관 홈페이지 자료 등 적의 선정
- 5) 청주시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6) 문화도시 청주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도서관 정책의 제시

1-3. 연구 수행 과정

1-3-1. 기초자료 조사

- 1976년 간행된 『청주시지』에서 청주시 도서관 역사에 대한 자료 발췌하고, 청주시 기록관에 소장된 『통계연보』에서 1960년대~70년대 시립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정리함. 청주시립도서관 공백기인 1990년대에는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 발행한 『도서관 30년사』에서 도서관 문화의 변천 과정을 정리함.
- 통합 전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 회의록을 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과정에서 도서관 건축 계획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청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 통계 및 비교 대상 도시의 통계를 정리하고, 비교 분석함.

1-3-2. 청주시 도서관 현장 조사

- 아래와 같이 청주시립 도서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사서,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함.
- 간담회에서는 도서관서비스 실무를 담당하는 사서 위주로 의견을 청취함.
- 본관(청주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에서 이용자 의견을 청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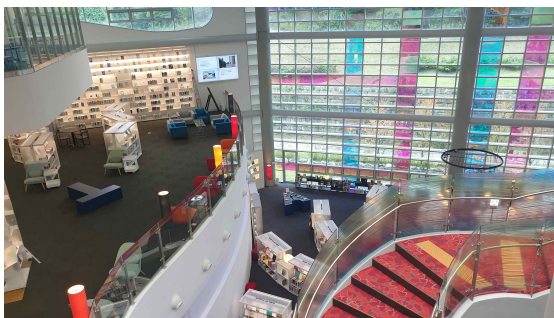
〈청주시립도서관 현장 조사 일정〉

날 자	도서관	방문조사자	동행자
2020.09.15. (화)	청원도서관 호수도서관 오창도서관	윤송현, 안찬수 서동민, 진재민	시립도서관 사서팀
2020.09.16. (수)	기적의도서관 상당도서관 신울봉어린이도서관 홍덕도서관	윤송현, 안찬수 서동민, 진재민	시립도서관 사서팀
2020.09.22. (화)	옥산도서관 강내도서관 오송도서관	윤송현, 서동민, 진재민	시립도서관 정책팀
2020.09.23. (수)	서원도서관 금빛도서관 시립도서관	윤송현, 서동민	시립도서관 정책팀

1-3-3. 국내 비교 도시 조사

- 타 도시와의 비교는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도서관 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파주시, 의정부시,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 고양, 부천 등을 같이 비교하였음.
-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비교 대상 도시들과 오래 전부터 도서관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자료 수집 및 비교가 가능하였음
- 다음과 같이 직접 비교대상 도시 도서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음.

날자	도시	방문 도서관	방문조사자
2020.09.17.(목)	의정부	가래울도서관 의정부미술도서관	윤송현 서동민
2020.10.08.(수)	전 주	꽃심도서관	윤송현
2020.10.21.(수)	파 주	중앙도서관(거점도서관) 가람도서관(음악도서관) 한울도서관(장애인도서관) 교하도서관(BTL)	윤송현 안찬수 서동민



〈그림 1〉 의정부 미술도서관 방문



〈그림 2〉 파주 교하도서관 방문

1-3-4. 해외 사례 조사

- 윤송현, 안찬수, 서동민은 2019년 5월 30일 ~ 6월 12일까지 북유럽(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을 돌며 총 22개 도서관을 탐방 조사한 경력이 있음.
- 윤송현, 안찬수는 각각 2018년 일본, 싱가포르 도서관을 탐방 조사한 경력이 있음.
- 추가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조사 및 정리함.

1-3-5. 코로나19 로 인한 조사의 한계

-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서관 휴관 및 제한 운영으로 인해 일상적인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음.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조사 및 이용자 집단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집단 자문회의 등을 거치지 못하였음.

1-3-6. 중간보고회

- 2020년 10월 19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도사모 소속 의원, 시립도서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수행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진단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했음.
- 중간보고회 참석자
 - ,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격려사
 - , 도사모 의원 : 유영경, 박용현, 정우철, 남일현, 김용규, 최동식, 박완희, 박노학
 - , 시립도서관 :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미우 오송도서관장 등 사서 20여명
 - , 작은도서관 : 이나양(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정책위원장)
 - , 연구진 : 윤송현, 안찬수, 서동민

1-3-7. 보충 조사

- 중간보고 후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추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음.

1-3-8. 최종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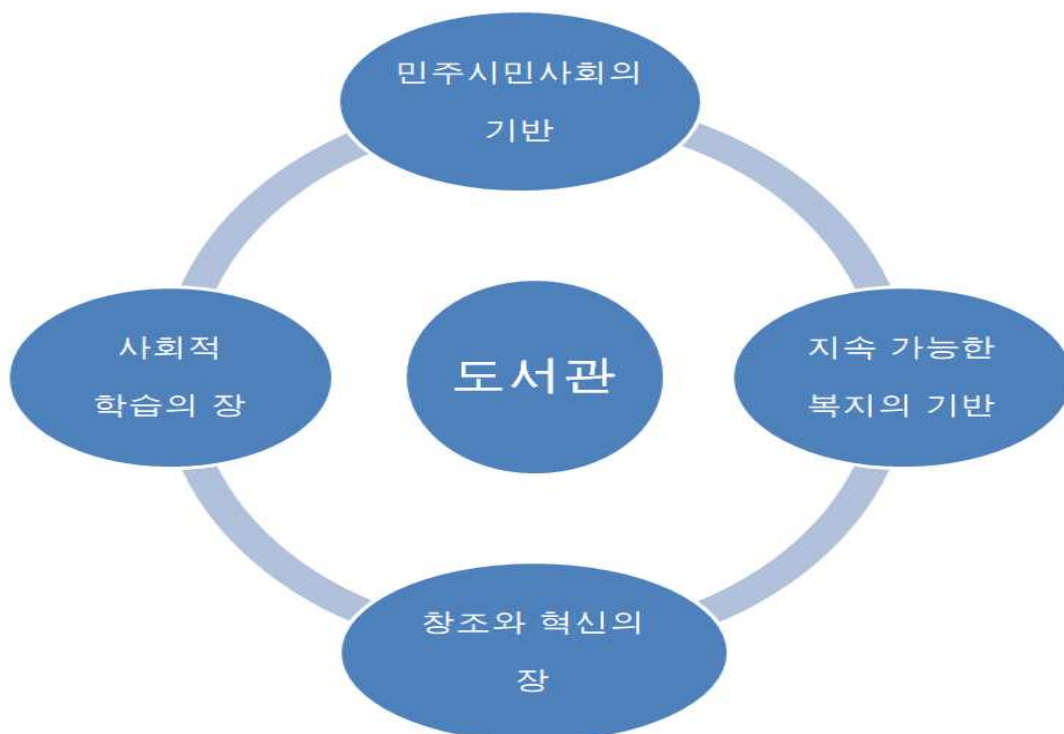
- 2020년 12월 1일(화) 오후 4시 청주시의회 자료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짐.
- 중간보고회 참석자
 - , 시의원 : 이재숙, 유영경, 박용현, 정우철, 남일현, 김용규, 최동식, 박노학
 - , 시립도서관 : 김미수 시립도서관장, 김기원 시립도서관 정책팀장

2. 도서관 평가의 기준

2-1. 왜 도서관은 중요한가?

2-1-1.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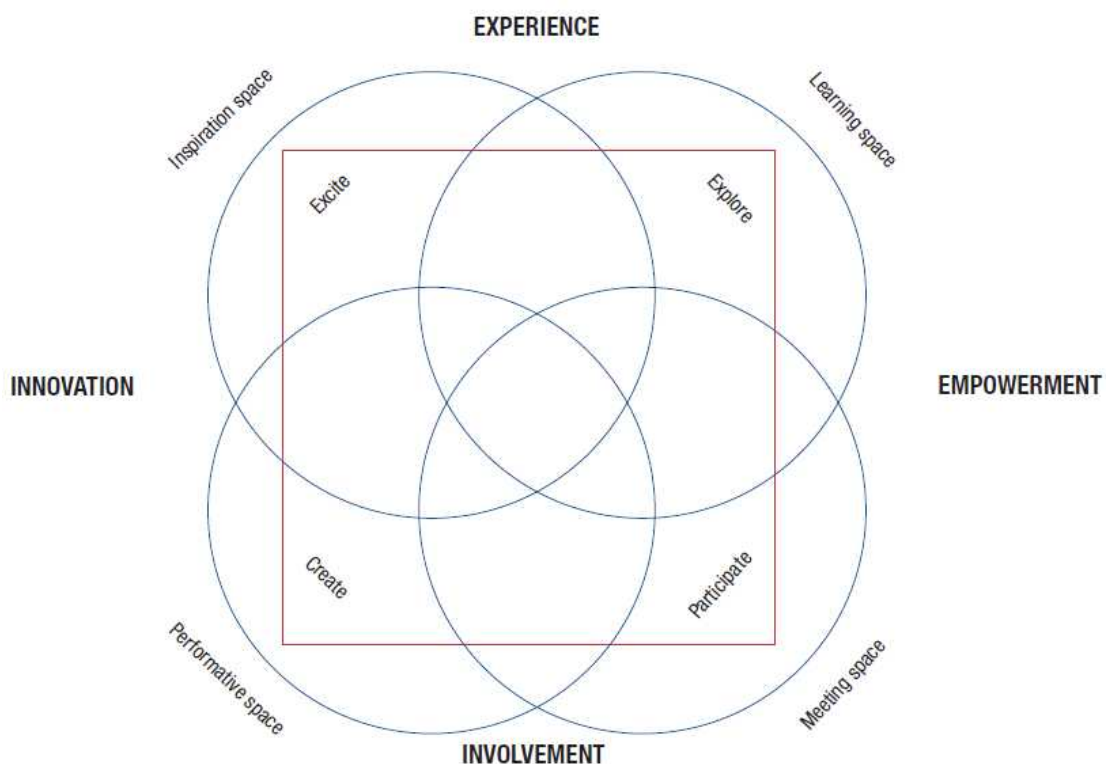
- 도서관은 인류의 경험과 사고의 산물을 집적해놓은 곳임. 수집과 보존,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인류 문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심 기지임. IT의 발달은 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음.
- 도서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임.
- 도서관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고, 도와주는 곳임.
- 도서관은 사람들이 자신이 얻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임.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정보를 확장하고, 교정하는 곳임.



〈 그림 3 〉 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

2-1-2. 도서관은 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가?

- 도서관은 민주시민사회의 기반임. 종합적인 정보의 집적과 공유,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양성을 포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의 토대를 이룸.. 사회적 갈등 해소의 장이고, 사회통합의 장임..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담보하는 기반임.
- 도서관은 사회적 학습의 장임. 정보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력을 높임. 자발적인 정보 접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한 정보 접근의 차별, 문화지체를 해소하는 공간임.
- 도서관은 창조와 혁신의 장임. 누구나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를 통해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이룰 계기를 만들 수 있음.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공적인 창업의 기반이 됨. 도서관은 제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다시 4차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뒷받침함.
- 도서관은 지속가능한 복지의 기반임. 시민들의 자존감과 자주성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임. 인문적인 사고와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임.



< 그림 4 > D. Skot-Hansen 등이 제시한 도서관의 네 가지 공간 모형

2-2. 도서관은 어떻게 변해왔나

2-2-1. 유럽의 도서관 흐름

- 도서관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인류가 생산해온 지적 활동의 산물을 수집, 보관하여 사회가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지로서 존재해왔음.
- 중세 이후 도서관은 수도원과 대학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고, 르네상스 시대 인문부흥의 흐름과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 출판이 활발해지면서 상인과 귀족 사이에서 장서가들이 등장하고,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특권층의 전유 공간이었음.
- 근대 시민혁명 이후 일반 시민에 대한 계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동시에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학교교육과 함께 성인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음.
-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보통선거제도,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 대한 성인교육,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유럽 각국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빠르게 보급되었음. 도서관은 시민계몽, 기술 보급,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음.
- 1980년대 교통과 통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아시아 국가의 산업화로 인해 유럽은 산업 기반이 제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재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됨.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자료를 열람 대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습과 문화 창조의 거점으로 확대됨.
- 2000년대 IT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변화는 도서관에 또 새로운 혁신을 불러왔음. 자료의 열람 대출 방식이 바뀌었고, 이제는 “도서관은 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라고 정의하는 단계에 와 있음. 최근 유럽 도서관의 지향은 배우는 공간, 영감을 얻는 공간, 창조하는 공간,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임.

2-2-2. 우리나라의 도서관 흐름

-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도서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였지만, 도서관의 목적이 일본문화의 보급이었기 때문에 일본어 장서가 중심이었음.
- 한국전쟁의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된 1950년대 후반에야 도서관이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었음.
- 전후 복구 시기 산업기반이 취약하였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원조를 국가가 관리 배분하는 국가주도 방식이 주를 이뤘음. 학생들의 학습은 공무원 시험공부가 주를 이루고,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도서관 열람실은 학생들의 공부방이 되었음.
- 1960년대 ~ 80년대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들의 경험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었음. 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도서대출 이용률은 떨어졌고, 도서관은 오래도록 폐가식 장서를 유지하고 있었음.
- 정부에서도 도서관 업무는 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많은 곳에서 시립으로 운영하던 도서관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음. 문교부에서는 학교 쪽에 대부분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도서관은 학생들이 방과후에 공부하는 공간 정도로 평가하여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지속하였음.
- 1990년 노태우정부에서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도서관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조정된 것은 도서관이 독서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도서관계의 강한 의지의 반영이었음.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02년 MBC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연출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면서 자치단체별로 도서관 만들기 붐이 조성되었음.
- 그러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독서실’, ‘공부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아직도 조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부지도 확보가 용이한 곳, 대부분 공원이 선호되고 있음. 도서관 실제 이용도 취업 준비, 학교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음.
- 국내에도 도서관 보급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사서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고, 정부에서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여 도서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2-3. 어떤 도서관이 필요한가?

2-3-1. 새로운 도서관은 왜 필요한가?

- 도서관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남.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욕구와 생활방식도 변화했는데, 도서관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도서관이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화에 맞춰 도서관이 변신을 해야 함.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인 장서 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음. 정보 검색이 용이해졌고 상호대차가 일반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도서관은 장서관리만으로 유지될 수 없음. 도서관은 장서관리뿐만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함.
- 산업의 변화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가 달라졌음.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달라졌음. 단순한 지식 정보의 제공은 이제 의미가 없음. 지식의 융합과 새로운 창조가 요구됨. 도서관은 사람들에게 평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입체적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단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영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함.

2-3-2.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도서관이 되어야 함. 이제 도서관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조용한 곳에 있으면 안 됨.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함. 엄숙하고 차분한 공간 분위기를 탈피해야 함. 아름다운 건축물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끌어당김. 아름다운 공간,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져야 함. 도서관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보완하는 ‘제3의 공간’ 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거실이 되어야 함.
- 새로움이 가득한 도서관이 되어야 함. 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새로움을 만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필요한 정보만 찾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새로움을 얻고, 영감을 얻는 공간이 되어야 함.
- 이용하기 편한 도서관이 되어야 함. 장서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대출과 반납이 용이해야 함. 장서서비스만 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도서관에 들어서 책도 빌리고, 공연도 보고, 쇼핑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구성이 필요함. IT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제3의 공간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가 『the Great Good Place』(1980)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집(가정)과 일터(회사) 이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뜻함.

3. 청주시 현황

3-1. 청주시 개요

- 청주시는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한남금북정맥이 지나는 동북쪽은 산악지대이고, 무심천과 미호천이 지나는 서남쪽은 평야지대임. 무심천을 끼고 도심이 발달했으며, 도심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기간도로가 구축되고, 읍면이 형성되어 있음.
- 청주시는 금강과 미호천, 무심천을 따라 천변과 구릉지가 발달해 있고, 기후가 온난하고, 자연재해가 많지 않아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구석기시대(두루봉동굴 유적)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유적이 고르게 발견되고 있음.
- 고려 태조 때 청주로 명명하였으며, 조선 시대에 들어 충북 지역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았고, 삼남을 연결하는 주요한 길목으로 발달하였음.
- 1945년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분리되었다가 2014년 7월 다시 청주시로 통합되었음
- 충북의 도청소재지로서 각종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음.
- 1980년대 운천신봉동 지역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90년대 용암1지구, 수곡지구, 복대지구, 율량지구, 분평지구, 금천지구, 용암2지구, 하북대지구, 산남지구, 성화지구, 강서지구, 대농지구, 율량2지구, 동남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청주의 도시 외곽을 순환하면서 진행됨. 구 청원 지역에서는 오송신도시와 오창테크노빌의 개발로 서북부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었음.
- 1960, 70년대 신흥제분, 연초제조창, 대농이 청주의 기간산업체였음. 청주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금성계전을 중심으로 영태, 한주, AMK 등 전자회사들이 자리를 잡았고, 이후 LG화학, LG산전, LG전자의 LG그룹이 청주 경제의 큰 축을 이룸. 2000년대 들어 반도체산업이 자리를 잡았고, 오창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되며 청주 경제를 이끌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도시 외곽이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고령화 및 공동화되기 시작했고, 중심상권도 외곽으로 분산됨.

3-2. 청주시 인구 현황

- 2020년 9월 30일 기준 청주시 전체 인구는 857,073명이며, 이중 내국인은 844,110명, 외국인인 12,963명임. 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됨. (본 보고서의 도서관 평가 자료는 2019년 인구 839,556명을 기준으로 함)

<표 9> 청주시 인구 변동 현황

년도	인구수	증가수	년도	인구수	증가수
1985	491,848		2015	819,554	15,435
1990	592,304	100,456	2016	835,197	15,643
1995	643,027	50,723	2017	835,590	393
2000	701,256	58,229	2018	837,749	2,159
2005	752,768	51,512	2019	839,556	1,807
2010	804,119	51,351	2020. 09	844,410	554

※ 1985~2015년은 통계청, 2016년 이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단위 명, 외국인 제외)

- 행정구별 인구는 흥덕구 > 서원구 > 청원구 > 상당구의 순이며, 동별로는 오창읍 (69,235) > 용암1동(54,048) > 복대1동(52,925) > 가경동(51,236) > 율량사천동(48,602) > 성화개신동(45,440) 순임.

< 표 10 > 청주시 인구 연령별 인구 현황

	0-9세	10-14세	15-24세	25-64세	65세 이상	합계
상당구	15,892	9,203	22,893	110,175	28,840	187,003
%	8.5	4.9	12.2	58.9	15.4	100.0
청원구	20,436	10,147	20,993	117,712	24,498	193,786
%	10.5	5.2	10.8	60.7	12.6	100.0
흥덕구	24,486	12,991	32,123	167,094	29,144	265,838
%	9.2	4.9	12.1	62.9	11.0	100.0
서원구	14,398	9,698	25,841	118,298	29,248	197,483
%	7.3	4.9	13.1	59.9	14.8	100.0
청주시	75,240	42,054	101,885	513,462	111,769	844,410
%	8.9	5.0	12.1	60.8	13.2	100.0

※ 행정안전부 2020년 9월 30일 주민등록 인구통계 (단위 명, 외국인 제외)

4. 청주시 공공도서관 현황

4-1. 청주시 도서관 역사

4-1-1. 지방자치 이전 청주시립도서관

- 일제강점기인 1925년 10월 1일 남문로2가 92번지에 간이도서관이 만들어졌다가 1930년 현 성안길우체국 자리에 청주읍립도서관이 설립되었고, 1932년 중앙공원 서쪽인 현 청주문화관 건물로 이전하였음.
-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장서가 분실되고 시설이 피해를 입었음.
- 1956년 9월 1일부터 청주시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다가 다시 1959년 9월 1일 청주시에 인수하여 청주시립도서관으로 개칭하고, 북문로 1가 6-4번지 도청 서문앞로 이전하여 장서 1,500권 열람석 40석으로 개관함.
- 1966년 8월 10일 남문로2가 92번지에 2,360만원을 들여 4층 철근콘크리트 현대식 건물을 착공하여 1967년 4월 29일 418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600.89평의 건물을 완공하였음. 5월 17일 개관함.
- 1960년에 열람실을 이용한 인원은 총 11,750명, 열람한 책은 7,529권이었고, 1966년에는 열람실 이용자가 44,723명, 열람한 책은 12,824권이었음. 1975년에 열람실 이용자는 남자 127,522명, 여자 66,379명이었음. 직업별로는 학생이 80% 이상(중,고, 대학생) 초등학교까지 합치면 95%를 넘었음. 이렇듯 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음.



도청 서문 앞 시립도서관



중앙공원내 시립도서관

4-1-2. 충청북도 교육청 도서관 시대

- 충청북도 학생회관은 1979년 12월 18일 청주여고 부지 내에 4층 건물로 개관하였는데, 학생회관의 주된 시설은 남중고 열람실 3실, 여중고 열람실 1실, 아동열람실 1실, 서고 1실이 있었고,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 재학생이었음.
- 1985년 5월 15일 청주시립도서관이 폐관되면서 전입한 직원(1명)과 장서 32,620권을 인수하여 청주에서 유일한 도서관이 되었고, 이용 대상도 일반인으로 확대하였음.
- 1985년 5월 29일에 청주문화방송에서 운영하던 차량(25인승)과 장서를 기증받아 이동도서관을 처음 운영하기 시작했음.
- 1985년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이 충청북도중앙도서관으로 명칭 변경됨.
- 1986년에 문교부로부터 시범도서관이 되면서 개가식 장서 운영이 시작됨. (이전에는 현관에 있는 목록함에서 희망하는 도서를 찾아 열람표를 작성하여 안내데스크에 요구하면 직원이 찾아서 대출하는 폐가식 서가를 운영함)
- 도서관 이용이 활발해지며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도서관 이전이 모색됨. 당시에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보다는 지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안한 독서실로서의 기능이 더 컸기 때문에 복잡한 시내보다는 한적하고 조용한 외곽이 선호하는 장소였음.
- 1989년 11월 30일 현재 중앙도서관 자리(지하 1층, 지상 5층, 건평 8,495㎡의 건물)에서 이전하였음.
- 1992년부터 도서관 입관료, 도서대출료, 연체료가 폐지되었음.

4-1-3. 지방자치 이후 청주시립도서관 건립

- 1984년 청주시립도서관을 폐관하고 모든 자료를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한 이후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없었음.
- 구 청원군에서는 1996년 옥산면에 옥산도서관을 개관하였음.
- 1998년 7월에 취임한 민선2기 나기정 시장은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함. 1999년 9월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비 45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2003년 9월 3일 시립정보도서관을 개관하였음.
- 2003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현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MBC문화방송의 ‘느낌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한 기적의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에 신청함. 당초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매입하였던 수곡동 부지에 기적의도서관을 건축 2004년 7월 15일에 개관하였음.
- 청주시의 동서남북과 중앙에 5개의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고, 2007년 3월 21일 북부도서관(지금의 청원도서관), 2009년 3월 31일 서부도서관(지금의 흥덕도서관), 2009년 4월 7일 신울봉어린이도서관, 2010년 3월 18일 상당도서관, 2012년 3월 12일 남부도서관(지금의 서원도서관)을 개관하여 구 청주시 지역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였음.
- 구 청원군에서는 2009년 9월 16일 오창 신도시에 목령도서관을 개관하였고, 2013년 9월 24일 오송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를 위해 오송도서관을 개관하였음.
-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함. 오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령도서관을 폐관하고 2016년 5월 3일 오창호수도서관을 개관하였음. 농촌 지역 개발사업으로 2016년 7월 13일 오창도서관, 2016년 10월 19일 강내도서관을 개관하였음.
-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흥덕구 가경동 지역에 가로수도서관, 내수읍내에 내수도서관을 건축 중임.

4-1-4. 도서관 행정 조직 변화

- 2003년 9월 청주시립정보도서관 개관으로 문화예술국 산하 사업소로 출발
- 2010년 1월 청원군 목령도서관 개관, 청원군 문화공보실 소속
- 2011년 7월 평생교육원 산하 청주시립도서관으로 조직 변경
 - 평생교육원 4급 기관 신설 (평생학습관을 주무과로 함)
-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으로 조직 및 도서관 명칭 변경
 - 청원도서관(북부도서관), 서원도서관(남부도서관), 흥덕도서관(서부도서관)
 -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을 5급 기관으로 분리
 - 청주시립도서관(시립도서관, 상당도서관, 청원도서관, 목령도서관)
 - 청주시립오송도서관(오송도서관, 서원도서관, 흥덕도서관, 신울봉어린이도서관)
- 2015년 7월 평생교육원에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변경
 - 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신설
- 2018년 9월 시립도서관 정보팀, 시설팀 신설
- 2019년 7월 조직 개편 - 오창호수도서관 5급 기관 승격



<2020년 청주시립도서관 조직도 >

4-2. 청주시 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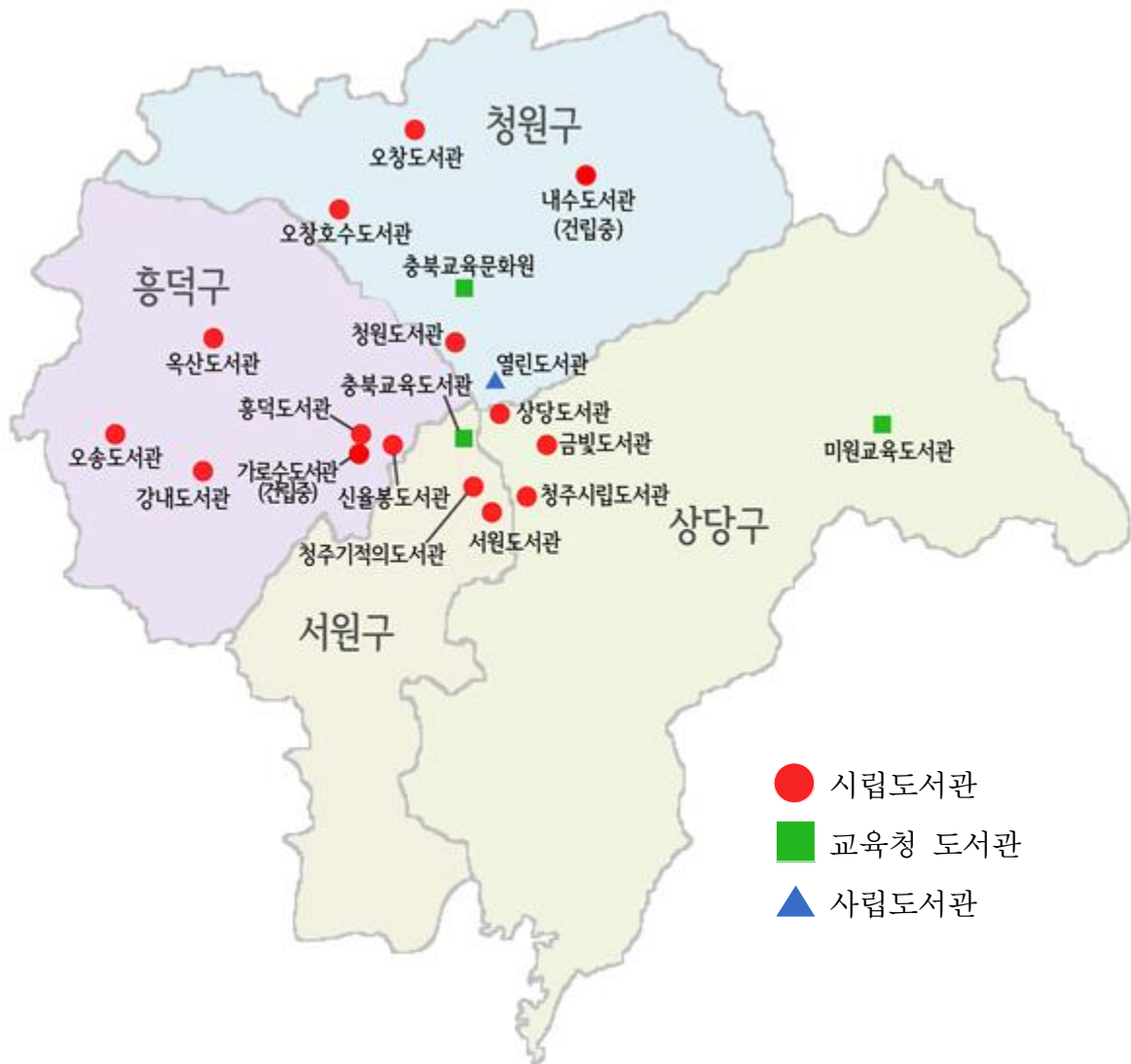
4-2-1. 청주시 공공도서관 현황

- 청주시 공공도서관은 2020년 현재 총 17개관이 운영 중이며, 청주시 소속 도서관 13개관, 충청교육청 소속 도서관 3개관, 사립 도서관 1개관임.
- 행정구별로 상당구 4개관(시립 3, 교육청 1), 서원구 3개관(시립 2, 교육청 1), 청원구 5개관(시립 3, 교육청 1, 사립 1), 흥덕구 5개관(시립 5)이 운영 중임.
- 사립도서관인 열린도서관은 청주시의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20)에 근거하여 운영비 전체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열람만 가능할 뿐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표 12〉 청주시 공공도서관 현황

구분	도서관명	개관년도	위치	연면적(㎡)	직원수	장서수
청주시립	청주시립도서관	2003	상당구	5,370	41	278,711
	청주금빛도서관	2019		4,052	14	37,511
	청주상당도서관	2010		2,681	12	128,814
	오창호수도서관	2016	청원구	8,338	24	122,685
	청주청원도서관	2007		2,623	13	145,029
	청주오창도서관	2016		1,781	9	97,203
	청주시립오송도서관	2013	흥덕구	2,752	18	109,127
	청주신율봉어린이도서관	2009		990	5	77,270
	청주흥덕도서관	2009		2,480	14	129,451
	강내도서관	2016		1,140	12	80,984
	옥산도서관	1996		679	11	67,686
	청주서원도서관	2012	서원구	2,692	14	116,051
	청주기적의도서관	2004		968	6	48,560
사립	청주열린도서관	2019	청원구	1,831	10	21,989
교육청 설립	충청북도교육도서관	1979	서원구	8,831	60	419,604
	충청북도교육문화원	1990	청원구	334	3	37,914
	미원교육도서관	1988	상당구	806	7	72,547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대학도서관은 2018년 기준, 직원수는 공무원 및 임기제 직원 포함)



〈그림 7〉 청주시 공공도서관 지도

4-2-2. 대학도서관 등 현황

- 청주시내 소재하는 8개 대학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립도서관 등과 상호대차 등 업무 협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무지개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으로, 열람석 15석, 점자도서 제작실 1개소, 녹음도서 제작실 1개소가 있음. 대면낭독실과 수화, 자막영상 제작실은 갖추고 있지 않음. 직원은 2급 사서 1명 외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 2018년 예산 5억 2천 6백만원 중 청주시에서 4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음(도비 30% 포함).
- 병원도서관과 교도소도서관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시에서 지원하거나 업무 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표 13> 청주시내 대학도서관 등 현황

구분	도서관명	개관년도	위 치	연면적(㎡)	직원수	장서수(점)
대학교	꽃동네대학교도서관		서원구	1,727	1	63,883
	서원대학교도서관		서원구	8,322	13	705,102
	청주교육대학교도서관		서원구	5,097	3	285,488
	청주대학교도서관		청원구	17,567	15	1,226,041
	충북대학교도서관		홍덕구	30,666	26	1,332,737
	충북보건과학대학교도서관		청원구	1,660	2	124,898
	충청대학교도서관		홍덕구	574,495	3	164,975
	한국교원대학교도서관		홍덕구	14,195	14	637,559
장애인	무지개도서관	1997	홍덕구	84	8	도서 5,847 대체자료 10,497
교도소	청주교도소 도서관	1978	서원구	97	1	6,405
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도서관	1989	서원구	96	1	6,338
병원	청주성모병원도서관					미등록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대학도서관은 2018년 기준, 직원수는 공무원 및 임기제 직원 포함)

4-2-3. 작은도서관 현황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청주시내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총 118개소임

< 표 14 > 청주시내 작은도서관 현황

지 역	개소수	설립 구분		운영 주체별 구분				
		공립	사립	교회	아파트	시청	개인	단체
전 체	120	6	114	26	52	5	21	16
상당구	23	0	23	10	3	0	5	5
청원구	35	3	32	3	19	2	7	4
흥덕구	32	2	30	8	13	2	5	4
서원구	30	1	29	5	17	1	4	3

(2020. 10월 31일 기준, 청주시립도서관 제공)

-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청주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청 내 담당부서에서 운영비 등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시립 도서관에서는 도비 매칭 도서구입비를 관당 200만원선에서 목록을 받아서 책을 구입 해서 지원하고 있음.

< 표 15 > 청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도서관명	담당부서	소재지	개관	장서수 (권)	면적 (㎡)
내수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	청원구 내수읍	96.12.01	23,450	313
봉명작은도서관	봉명1동주민센터	흥덕구 봉명동	11.02.21	8,313	636
평생학습관도서관	평생학습관	흥덕구 복대동	11.02.21	5,012	36
두꺼비생태도서관	공원관리과	서원구 산남동	12.10.26	1,000	170
맹꽁이생태도서관	공원관리과	서원구 성화동	12.05.25	1,000	128
해피레인보우	청주시건강 가족지원센터	서원구 모충동	12.05.15	1,000	71

(2020. 10월 31일 기준, 청주시립도서관 제공)

4-3.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현황

4-3-1. 도서관수 및 봉사인구수

- 청주시는 시립도서관 13개관을 운영 중임. 공공도서관 중 교육청 설립 도서관 및 사립 도서관은 규모나 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1관당 전국 평균이나 충북 평균 등은 봉사인구수가 적은 군 단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의미가 적음. 비교적 도서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를 선별 하여 비교하였을 때, 청주시는 1관당 봉사인구수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임. 특히 청주 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 전주시, 부천시에 비해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함.

<표 16> 도시별 시립도서관 및 봉사인구수 비교

	청주시	수원시	부천시	전주시	김해시	파주시	순천시
전체인구	839,566	1,194,465	829,996	654,394	542,455	454,040	279,598
도서관수	13	24	14	12	6	17	7
1관당 봉사인구수	64,582	49,769	59,285	54,533	90,409	26,708	39,943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인구수는 통계청 2019년 주민등록인구)

4-3-2. 장서수

- 청주시의 시민 1인당 장서수는 부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장서수는 공공도서관 평가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음. 도서관이 장서보관소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용하지 않는 장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에 장애가 되기 때문임.
- 도서관 평가에서는 신규 도서 구입량을 반영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되는 장서량과 장서개발 노력을 평가하는 것임. 이때, 신규 도서 구입량은 그해 신규 개관 도서관이 있을 때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청주시는 2019년에 금빛도서관을 개관하여 장서 구입분이 많음.

<표 17> 도시별 장서 현황 및 신규 구입 현황 비교

	청주시	수원시	부천시	전주시	김해시	파주시	순천시
전체인구	839,566	1,194,465	829,996	654,394	542,455	454,040	279,598
장서수	1,439,082	2,866,455	1,485,864	1,188,930	695,075	1,118,760	662,002
신규구입	106,021	132,148	134,149	39,728	46,731	69,077	32,129
장서수/1인당	1.71	2.40	1.79	1.82	1.28	2.46	2.37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인구수는 통계청 2019년 주민등록인구)

<표 18> 청주시립도서관 관별 장서 현황

구	도서관명	도서자료 (인쇄)수	연간증가자료수		제적 자료수	시청각자료 (점)	향토자료 (권수)
			구입	기증			
상암동구	시립도서관	278,711	6,889	42	0	8,260	1,053
	상당도서관	128,814	6,681	40	0	8	290
	금빛도서관	37,511	37,148	363	0	125	0
청원동구	오창호수도서관	122,685	9,238	121	0	2,517	138
	청원도서관	145,029	7,009	147	0	47	247
	오창도서관	97,203	4,441	76	905	0	374
해오동구	오송도서관	109,127	9,277	40	72	1,236	800
	흥덕도서관	129,451	6,247	178	592	573	122
	강내도서관	80,984	2,751	24	1,013	0	92
	옥산도서관	67,686	4,032	0	1,200	1,351	207
	신울봉어린이도서관	77,270	4,463	2	0	47	12
서원동구	서원도서관	116,051	5,133	712	1,222	1,575	157
	기적의도서관	48,560	2,712	98	3,000	67	0
합계		1,439,082	106,021	1,843	8,004	15,806	3,492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 청주시 대부분 도서관이 자료실 규모에 비해 장서가 많아 관리하기 어려운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음. 각 도서관별로 최대 관리 장서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4-3-3. 도서관 예산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2019년 집행결산 기준 도서관 예산을 정리해 보았음. 일반예산과 도서관 전체 예산은 각 자치단체의 2019년도 예산서를 따랐고, 인구는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를 인용했음.
- 청주시는 수원시에 비해 인구는 적지만 최종예산이 더 많고, 1인당 시예산 비율에서 앞섬. 전주시에 비해서도 1인당 예산규모나 도서관예산 비율, 1인당 도서관 예산이 뒤지지 않음. 파주시나 순천시에 비해서는 도서관 예산비율이나 1인당 도서관 예산이 적음.
- 청주시 1인당 도서관 예산은 20,322원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하지만, 파주, 순천에 비해서는 적음.
- 도시의 일반예산에서 도서관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는 도서관 정책을 평가하는 매우 유효한 기준이 됨. 청주시는 도서관 예산 비율이 0.67%에 머물러 있음. 1%대를 유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야 함.

< 표 19 > 2019년 자치단체별 도서관 예산 비교

	청주시	수원시	부천시	전주시	김해시	파주시	순천시
전체인구 ①	839,566	1,194,465	829,996	654,394	542,455	454,040	279,598
일반예산 ② (단위 : 백만원)	2,543,775	2,592,791	1,640,840	1,929,305	1,502,222	1,379,268	1,184,564
도서관 전체 예산 ③ (단위 : 천원)	17,061,524	21,853,360	16,565,643	11,737,232	9,294,440	13,729,842	9,338,961
장서예산	1,581,679	2,358,479	1,734,950	568,160	710,122	4,559,582	582,434
인 건 비	7,930,975	12,679,071	11,585,185	6,900,984	5,427,888	5,525,981	1,924,216
운 영 비	7,548,870	6,815,810	3,245,508	4,268,088	3,156,430	3,644,279	6,832,311
1인당 시예산 (②/①, 단위 : 천원)	3,030	2,171	1,977	2,948	2,769	3,038	4,237
도서관 예산 비율 ③/②	0.67	0.84	1.01	0.61	0.62	1.00	0.79
1인당 도서관 예산 ③/①	20.322	18.296	19.959	17.936	17.134	30.239	33.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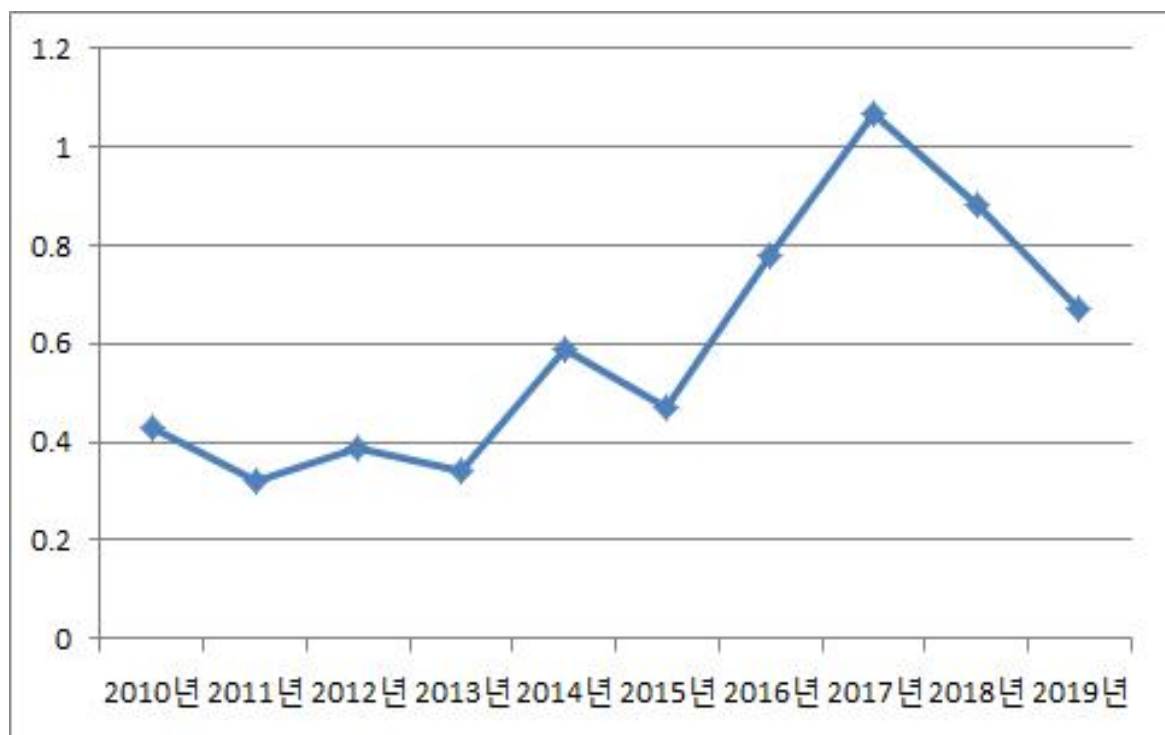
(일반예산은 지자체 2019년 최종예산, 도서관 예산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 표 20 > 년도별 일반예산 대비 도서관 예산 비율 현황

년도	통계년도 집행 결산액 (단위 천원)			집행결산합계(A) (단위 천원)	최종예산액(B) (단위 백만원)	비율 (A/B, %)
	인건비	자료 구입비	운영비			
2010년	2,140,779	725,897	2,427,542	5,294,218	1,219,699	0.43
2011년	2,503,566	321,834	1,168,314	3,993,714	1,259,615	0.32
2012년	2,438,070	533,050	2,606,975	5,578,095	1,440,151	0.39
2013년	2,275,059	879,452	2,391,891	5,546,402	1,610,061	0.34
2014년	3,998,129	882,135	5,032,581	9,912,845	1,680,648	0.59
2015년	4,007,592	752,062	4,054,028	8,813,682	1,879,546	0.47
2016년	5,305,336	1,959,257	7,678,368	14,942,961	1,925,537	0.78
2017년	5,889,101	3,927,916	13,612,706	23,429,723	2,194,582	1.07
2018년	5,852,416	1,109,214	11,538,862	18,500,492	2,106,462	0.88
2019년	7,930,975	1,581,679	7,548,870	17,061,524	2,543,775	0.67

(집행결산액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 단위 천원, 최종예산안은 청주시 통계, 단위 백만원, %)

10년간 일반예산 대비 도서관 예산 비율 현황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시 일반예산 최종예산안 대비 집행결산액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2017년도 최종예산안이 크게 늘었던 것은 오창호수도서관, 강내도서관, 오창도서관 개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 도서관 예산 비율이 안정적으로 일반예산 대비 1%가 넘도록 예산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음.

< 표 21 > 청주시립도서관 관별 예산 현황(2019년 집행 결산액)

	도서관명	통계년도 집행 결산액 (천원)		
		인건비	자료 구입비	운영비
상당구	시립도서관	1,459,205	157,490	5,793,658
	상당도서관	540,535	105,468	89,116
	금빛도서관	378,679	446,121	133,653
청원구	오창호수도서관	861,789	135,579	157,911
	청원도서관	560,555	89,981	105,751
	오창도서관	446,120	85,727	52,481
홍덕구	오송도서관	870,167	132,067	690,485
	흥덕도서관	658,396	110,607	91,202
	강내도서관	567,475	67,807	75,185
	옥산도서관	424,528	49,901	58,114
	신울봉어린이도서관	311,834	55,276	54,801
서원구	서원도서관	668,313	104,316	97,579
	기적의도서관	183,379	41,339	148,934
합 계		7,930,975	1,581,679	7,548,870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 단위 천원)

4-3-4. 도서관 등록자 및 이용자수

- 2019년 청주시 도서관 등록자는 244,751명으로 청주시 인구의 29.15%임. 순천시 39.72%, 수원시 35.35%, 전주시 34.98%에 비해 적은 수치임.
- 도서관 방문자와 자료실 이용자는 자치단체별로 집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 의미 있는 비교 자료로 삼기는 어려움.

〈표 22〉 2019년 주요 도시 도서관 이용 현황 비교

	청주시	수원시	부천시	전주시	김해시	파주시	순천시
전체인구	839,566	1,194,465	829,996	654,394	542,455	454,040	279,598
등록자	244,751	422,219	182,631	228,919	176,741	108,307	111,068
도서관방문자	2,763,339	8,883,994	3,438,928	3,332,861	1,572,090	3,098,063	856,126
자료실이용자	2,617,496	7,809,589	2,911,208	1,520,183	991,494	2,563,252	624,463
등록자 비율(%)	29.15	35.35	22.00	34.98	32.58	23.85	39.72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단위 명, %)

4-3-5. 도서관 대출자수 및 대출권수

〈표 23〉 2019년 주요도시 도서관 대출 현황 비교

	청주시	수원시	부천시	전주시	김해시	파주시	순천시
전체인구	839,566	1,194,465	829,996	654,394	542,455	454,040	279,598
대출자수	130,435	410,499	374,619	78,710	72,820	182,384	23,956
대출권수	1,413,851	3,077,993	1,949,458	842,617	821,134	1,120,472	310,909
대출자 / 전체인구(%)	15.54	34.37	45.14	12.03	13.42	40.17	8.57
대출권수 / 전체인구(수)	1.68	2.58	2.35	1.29	1.51	2.47	1.1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단위 명, %)

- 대출자와 대출권수는 도서관 대출시스템을 통해 집계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됨.
- 전체 인구 대비 대출자수는 수도권 도시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청주시는 지방의 비교 도시에 비해 대출자수가 많음.
- 대출권수도 수도권 도시들과 여타 지방 도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청주시는 인구당 1.68권(점)으로 지방의 다른 도시에 비해 대출권수가 많음.

<표 24 > 2019년 청주시립도서관 관별 대출 현황

	도서관명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상당구	시립도서관	1,863	1,649	11,017	14,529	172,725	33,604	133,211	339,540
	상당도서관	6,798	2,879	37,214	46,891	36,786	10,894	140,345	188,025
	금빛도서관	5,151	1,617	15,986	22,754	46,033	3,151	28,364	77,548
청원구	오창호수도서관	1,866	1,242	9,374	12,482	83,024	15,493	234,493	333,010
	청원도서관	1,238	677	6,288	8,203	51,175	11,552	150,315	213,042
	오창도서관	615	169	2,844	3,628	20,146	1,874	56,452	78,472
흥덕구	오송도서관	940	381	4,628	5,949	39,311	6,971	114,138	160,420
	흥덕도서관	1,828	1,193	8,687	11,708	39,030	63,324	238,401	340,755
	강내도서관	384	648	2,761	3,793	20,579	27,341	79,134	127,054
	옥산도서관	1,686	769	8,793	11,248	8,693	3,569	28,586	40,848
	신울봉어린이도서관	164	61	2,709	2,934	109,988	0	0	109,988
서원구	서원도서관	1,431	1,154	7,422	10,007	49,917	16,288	159,370	225,575
	기적의도서관	6,367	403	12,712	19,482	15,892	1,233	51,042	68,167
합계		31,567	14,056	139,960	185,583	779,005	206,973	1,526,697	2,512,67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단위 명, 권)

- 도서관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흥덕도서관, 서원도서관, 청원도서관 순으로 대출이 많음.
- 상당도서관은 성인 대출자수가 많은 것이 눈에 띈. 금빛도서관은 2019년 11월 개관한 점을 고려하면 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신울봉어린이도서관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대출만 하는 어른들이 많음. 전집대출이 많기 때문에 대출자에 비해 대출권수가 많음.

5. 도서관에 대한 평가

5-1. 도서관 입지의 문제

5-1-1. 도서관 수는 적당한가

- 청주시는 2000년 이후 도서관을 꾸준히 건립하여 2019년 기준 13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21년에는 새로 2개소를 더 개관할 예정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도서관을 지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서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잘 운영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하고 있는 실정임. 도서관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어야 하는 것인가?
- 간단하게 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수를 비교하는 기준이 있음. 2019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보면 청주시의 1관당 봉사인구수는 비슷한 인구 규모의 성남시나 부천시보다도 적음. 서비스가 더 충실하다는 뜻임. 그런데, 이 수치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는 매우 못 미침. 인구가 적은 군지역에서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나온 결과임.
- 도서관당 봉사인구수는 도서관의 입지나 규모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숫자일 뿐으로, 실제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지역이나 인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 자료일뿐,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음.
- 단순한 도서관 수보다 도서관의 입지를 분석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표 26> 청주시 도서관수와 1관당 인구수 비교

지역	인구수(명)	도서관수(개)	1관당인구수(명)
청 주 시	839,566	17	49,386
충청북도	1,600,007	48	33,333
성 남 시	942,724	14	67,337
부 천 시	829,996	16	51,875
전 국	51,849,861	1134	45,723

(2019,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5-1-2. 도서관은 입지가 중요하다

- 근대적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 공공에서 투자하여 도서관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이 성별, 인종, 종교, 신분, 경제 환경에 관계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이를 실천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인 차별이 존재함. 도서관을 이용하기 좋은 지역이 있고,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음. 서비스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
- 그 사회가 도서관에 대해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그 역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도서관의 입지가 달라짐. 도서관을 중시하는 만큼 도서관이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달라짐.
- 새로운 도서관은 학습, 정보, 문화, 창조의 근거지로서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로 인식되고 있고, 도서관은 배움의 장, 새로운 창조의 장,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음.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이 도심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도서관을 시험공부 하는 곳, 책 읽는 곳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음.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

5-1-2. 도서관 입지 평가의 기준

- 도서관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첫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함. 걸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유모차를 밀고 쉽게 갈 수 있는가. 어린이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가. 노인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인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인가 하는 문제임.
- 둘째,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 모든 도서관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만들기는 불가능함.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도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유럽에서는 기차역이나 전철역 부근에 도서관이 많이 눈에 띈다.
- 셋째,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동선에 있는 것이 중요함. 거리가 가까워도 잘 다니지 않는 길에 있다면 특별히 시간을 내야만 갈 수 있고, 자연히 발길이 뜸해지게 됨. 시민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하게 하려면 도서관을 시민들의 일상생활 영역 속에 위치하게 해야 함. 쇼핑, 금융, 의료, 행정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이 중요함.

5-1-3. 도서관 권역별 인구 현황

- 도서관별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거나 버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 단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신울봉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일반자료실이 없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았음.

< 표 27 > 상당구 시립도서관 서비스 지역 인구 현황

도서관	행정구역	0-9세	10-14세	15-24세	29-64세	65세이상	계
시립 도서관	용암1동	5,563	3,055	7,371	33,044	5,015	54,048
	용암2동	3,806	1,846	4,461	20,981	3,023	34,117
	영운동	678	488	1,137	6,446	2,225	10,974
	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의면	807	464	1,547	12,026	7,544	22,388
	합계	10,854	5,853	14,516	72,497	17,807	121,527
금빛 도서관	금천동	2,572	1,717	4,247	17,385	4,049	29,970
	용담, 명암, 산성동	1,576	987	1,834	7,792	1,441	13,630
	탑대성동	433	310	995	5,143	2,176	9,057
	합계	4,581	3,014	7,076	30,320	7,666	52,657
상당 도서관	우암동	547	341	1,440	7,310	2,826	12,464
	중앙동	225	185	645	3,296	1,451	5,802
	성안동	232	151	656	4,062	1,916	7,017
	합계	1,004	677	2,741	14,668	6,193	25,283

※ 행정안전부 2020년 9월 30일 주민등록기준 인구 통계 (단위 명, 외국인 제외)

- 상당구는 금빛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 사각지대가 해소되었고, 시립도서관도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5개면 지역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방서지구, 동남지구가 준 사각지대임.
- 시립도서관 봉사대상 지역은 인구가 121,527명으로 1관당 봉사인구수를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음.

- 청원구 지역은 청원도서관이 사천동에 치우쳐 있어 도서관 서비스 구역으로 설정되는 넓은 지역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사각지대가 되어 있음. 특히 문화제조창 앞에서 중평 방면의 36번국도 주변에서는 청원도서관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노선도 없어서 올량2지구에 조성된 대단위 아파트 지역이 심각한 사각지대가 되어 있음.
- 내수도서관이 2021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내부읍, 북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해짐.

〈 표 28 〉 청원구 시립도서관 서비스 지역 인구 현황

도서관	행정구역	0-9세	10-14세	15-24세	29-64세	65세이상	계
청원도서관	내덕1동	359	233	918	5,110	2,202	8,822
	내덕2동	703	397	1,457	6,775	2,334	11,666
	올량.사천동	4,447	2,570	6,384	30,161	5,040	48,602
	오근장동	2,518	1,358	1,933	10,922	1,822	18,553
	합계	8,027	4,558	10,692	52,968	11,398	87,643
오창호수도서관 오창도서관	오창읍	10,186	4,223	6,349	43,390	5,087	69,235
내수도서관 (2021 개관예정)	내수읍	1,575	945	2,223	11,575	3,443	19,761
	북이면	101	80	289	2,469	1,744	4,683
	합계	1,676	1,025	2,512	14,044	5,187	24,444

※ 행정안전부 2020년 9월 30일 주민등록기준 인구 통계 (단위 명, 외국인 제외)

- 흥덕구에는 2021년 가로수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임. 가로수도서관은 가경동과 강서1동 일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강서1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경동, 강서1동만으로도 평균 1관당 봉사인구수를 넘어서게 됨.
- 흥덕도서관은 복대1동 중심에 있어, 강서1동 일부 지역 주민들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나, 복대2동, 사창동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연결노선이 많지는 않음.
- 사직1동, 사직2동은 교육청 소속인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청주시립도서관과 상호대차가 되지 않는 등 시립도서관과 연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표 29 > 흥덕구 시립도서관 서비스 지역 인구 현황

도서관	행정구역	0-9세	10-14세	15-24세	29-64세	65세이상	계
가로수도서관 (2021 개관예정)	가경동	4,358	2,959	7,500	31,645	4,905	51,367
	성화.개신.죽림동	4,021	2,628	6,194	27,762	4,835	45,440
	합계	8,379	5,587	13,694	59,407	9,740	96,807
흥덕도서관	강서1동	2,096	1,054	3,431	18,594	3,285	28,460
	복대1동	6,177	3,428	6,745	32,205	3,360	51,915
	복대2동	648	477	2,259	10,194	2,721	16,299
	사창동	699	450	2,144	9,149	2,590	15,032
	합계	9,620	5,409	14,579	70,142	11,956	111,706
오송도서관	오송읍	2,374	1,258	2,172	14,602	3,032	23,438
강내도서관	강내면	698	524	1,269	6,434	1,963	10,888
옥산도서관	옥산면	2,319	639	1,495	11,209	2,398	18,060
충북중앙 도서관 (교육청소속)	사직1동	321	234	803	4,714	1,848	7,920
	사직2동	1,449	742	1,545	8,657	2,211	14,604
	합계	1,770	976	2,348	13,371	4,059	22,524
	봉명1동	519	293	1,037	6,600	1,364	9,813
	봉명2.송정동	1,821	1,110	3,060	16,176	2,470	24,637
	강서제2동	2,510	560	930	8,525	953	13,478
	운천.신봉동	966	689	2,225	10,910	2,693	17,483
		5,816	2,652	7,252	42,211	7,480	65,411

※ 행정안전부 2020년 9월 30일 주민등록기준 인구 통계 (단위 명, 외국인 제외)

- 봉명1동, 봉명2동, 운천신봉동, 강서2동은 생활권내에 공공도서관이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도서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도서관 사각지대임. 최근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주민 입주가 끝나면서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짐.

< 표 30 > 서원구 시립도서관 서비스 지역 인구 현황

도서관	행정구역	0-9세	10-14세	15-24세	29-64세	65세이상	계
서원 도서관	분평동	2,683	1,993	4,907	18,665	3,169	31,417
	수곡1동	580	402	1,681	8,135	3,010	13,808
	모충동	724	442	1,771	8,982	2,953	14,872
	수곡2동	708	519	1,493	8,180	2,839	13,739
	산남동	2,466	1,935	4,155	16,075	2,414	27,045
	남이면	653	295	983	6,242	2,053	10,226
	현도면	94	58	165	1,737	1,326	3,380
	합계	7,908	5,644	15,155	68,016	17,764	114,487

※ 행정안전부 2020년 9월 30일 주민등록기준 인구 통계 (단위 명, 외국인 제외)

- 서원구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원도서관은 분평동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 남이면, 현도면이나 모충동, 수곡1, 2동, 산남동에서는 생활권이 다르고, 한번에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없어 어려움이 큼. 특히 서원도서관은 주차장이 좁은 도심형이기 때문에 지역 거점도서관으로 한계가 있음.

5-1-4. 청주시립도서관에 대한 입지 평가

- 도서관 입지는 전체적으로 도서관 이용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된 이용자의 특성, 많이 이용되는 공간 및 서비스, 시행하는 프로그램, 민원 형태에 영향을 미침.
- 도서관을 도보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연계로 구분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고, 종합하여 다섯 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였음.
- 청주시립도서관과 서원도서관, 오창도서관, 내수도서관, 강내도서관은 모든 면에서 입지가 아주 좋음.
- 금빛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흥덕도서관은 거리상 접근성은 우수하나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일상생활과의 연계가 떨어져 입지가 비교적 ‘좋은’ 도서관임.
- 상당도서관은 도보 접근성, 오송도서관과 가로수도서관은 일상 생활연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입지가 ‘보통’ 도서관으로 평가되었음.
- 청원도서관은 도보 접근성이 안 좋는데, 특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았고, 기적의도서관도 입지가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신울봉어린이도서관은 고령화된 주택지역에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낮아 개관한 지 오래 됐어도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임. 주차장도 좁아 이용이 불편함. 옥산도서관은 중심지역과 고속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낮은 곳에 있음.

5-1-5. 도서관 입지 평가에 따른 의견

- 신울봉도서관은 기능 전환하고,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종합적인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합지를 찾아 이전할 필요가 있음.
- 옥산도서관은 옥산면 주민센터 재건축시 함께 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청원도서관은 내덕1,2, 울량,사천동, 오근장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교통의 요충지인 내덕동 칠거리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오창도서관은 오창읍내 도서관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 이용은 매우 낮은 상태임. 오창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보다 시설이 좋은 오창호수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 평가와 달리 실제 이용은 매우 낮은 상태임.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됨.

< 표 31 > 청주시립도서관 입지 평가

	도서관	도보 접근성		대중교통		일상생활 연계		종합	진 단
상 당 구	시립도서관	아파트 밀집지역 유모차 접근 용이	5	버스 많음	4	쇼핑, 금융 병의원, 행정	5	14	매우좋음
	상당도서관	공동화된 도심 유모차 접근 불편	2	버스 많음	4	시청	1	7	보통
	금빛도서관	아파트 밀집지역 유모차 접근 불편	5	버스 있음	3	없음. 공원	2	10	좋음
청 원 구	오창호수도서관	아파트 밀집지역 유모차 접근 불편	5	버스 있음	3	없음. 공원	2	10	좋음
	청원도서관	아파트단지 외곽 유모차 접근 불편	1	버스 있음	2	없음.	1	4	나쁨
	오창도서관	읍소재지에 위치 유모차 접근 용이	5	버스 있음.	3	행정, 복지관 재래시장	5	13	매우좋음
	내수도서관	읍소재지에 위치 유모차 접근 용이	5	버스 있음.	4	행정, 복지관 재래시장	5	14	매우좋음
흥 덕 구	오송도서관	아파트단지 외곽 유모차 접근 불편	3	버스 있음.	3	복지관	2	8	보통
	흥덕도서관	아파트 밀집지역 유모차 접근 용이	5	버스 있음.	3	쇼핑, 행정	4	12	좋음
	강내도서관	아파트 밀집 지역 유모차 접근 용이	4	버스 많음	5	쇼핑, 금융, 주민센터	4	13	매우좋음
	옥산도서관	중심지에서 떨어진 유모차 접근 불편	1	버스 있음.	1	없음.	1	3	매우나쁨
	신울봉도서관	고령화된 주택지역 유모차 접근 불편	1	버스 있음.	1	복지관	1	3	매우나쁨
	가로수도서관	아파트 밀집 지역 유모차 접근 용이	5	버스 있음.	2	쇼핑	1	8	보통
서 원 구	서원도서관	아파트 밀집 지역 유모차 접근 용이	5	버스 있음.	3	쇼핑, 금융, 병의원, 행정	5	13	매우좋음
	기적의도서관	임대아파트 인접 유모차 접근 불편	1	버스 있음.	3	없음.	1	5	나쁨

5-1-6. 도서관 신설에 대한 의견

- 봉명2동, 운천 신봉동, 강서2동 지역은 이전부터 도서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테크노폴리스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
- 율량2지구(율량동, 오근장동), 내덕2동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신설이 필요함.
- 동남지구, 방서지구, 동남부 5개면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신설이 필요함.
- 산남동, 수곡2동 지역에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의 신설이 필요함.
-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부지 확보의 용이성에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대중교통 연결, 일상생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5-1-7. 해외사례

주민생활의 중심에 있는 일본 무사시노플레이스

- 도쿄도 무사시노시에 있는 무사시노플레이스는 2011년에 개관한 복합시설임. 도쿄도의 주요한 철도노선인 중앙선 무사시노역 앞에 자리잡고 있음. 무사시노역은 무사시노시의 대중교통의 중심지이고, 주변에 상권이 발달하여 무사시노 시민들의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했음. 역 앞에 있던 농림부 창고부지를 오래도록 협상 끝에 인수하여 무사시노플레이스를 만듦.
- 지상 4층, 지하3층의 건물로 도서관(지하1층~지상2층), 청소년활동지원센터(지하2층), 평생학습지원센터(4층), 시민활동지원센터(3층)으로 4가지 기능이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1층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카페가 있음
- 무사시노플레이스는 시민들의 생활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 건물을 멋지게 설계하여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점, 내부 공간을 잘 조성하여 막힘이 없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점, 현대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간들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개관이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일본 내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받아 왔음.
- 2013년에만 175만명이 방문하였음. 이후에도 모든 시설들에서 활발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 도서관은 언제나 이용자들로 붐볐음.



<그림 9> 무사시노플레이스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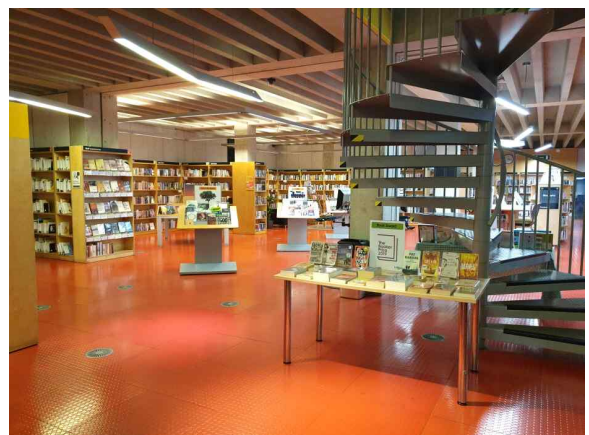
<그림 10> 무사시노플레이스 3층 시민활동지원센터

도서관 위치 조정 성공 사례, 영국 아이디어스토어

- 런던 동쪽지역에 있는 타워햄릿구는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임. 다른 지역에 비해 실업률도 높고, 소득수준이 낮음. 1998년 영국 정부는 성인 학습을 통해 주민들이 기술을 익히고, 실업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을 주요한 정책어젠다로 설정하였음. 타워햄릿구는 도서관은 많이 있었지만 도서관 이용률은 매우 낮았음. 타워햄릿구는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게 될지 고민하였고, 2년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주민들 상당수는 적당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하였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일상적인 생활속 동선 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특히 쇼핑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도서관을 많이 선호하였음. 지역 내 도서관이 많이 있고, 거리도 멀지 않았지만 생활상의 동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안이나 골목 뒤편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먹고 시간을 내야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음.
- 타워햄릿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센터나 시장 입구에 도서관을 새롭게 짓고, 골목 안 오래된 건물에 있던 도서관들을 폐쇄하였음. 2002년에 바우(Bow)에서 처음 아이디어스토어를 개관한 이후 잇달아서 크리스프 스트리트(Chrisp Street), 화이트채플(White chapel), 카나리워프(Canary Wharf)에 문을 열었고, 2013년에 와트니마켓(Watney Market)에 다섯 번째 아이디어스토어를 열었음. 12개관이었던 도서관이 7개관으로 조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서관 이용률은 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음.



〈그림 11〉 와트니마켓 아이디어스토어 모습



〈그림 12〉 화이트채플 아이디어스토어 내부

중심가 문 닫은 상가를 도서관으로 만든 덴마크 헤아닝도서관

- 2014년 8월 덴마크 헤아닝시는 공동화된 도심에 방치되어 있던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립도서관 본관을 이전 개관함. 이전 도서관은 도시 외곽 주택단지에 있었는데, 건물이 오래되었고 주거환경도 변하면서 도서관 신축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새로운 도서관은 도심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와 헤아닝역,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서 도심에서도 중심이 되는 공간에 있음.
- 2년에 걸친 리모델링을 거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을 디자인이 우수하고, 기능적으로 혁신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하였음. 개관 이후 도서관은 시의 기대대로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매일같이 다양한 성인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도서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도심 공공화 문제까지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림 13〉 상가를 리모델링한 헤아닝도서관



〈그림 14〉 헤아닝도서관 내부

5-2. 도서관 건축 과정

5-2-1. 청주시 도서관 건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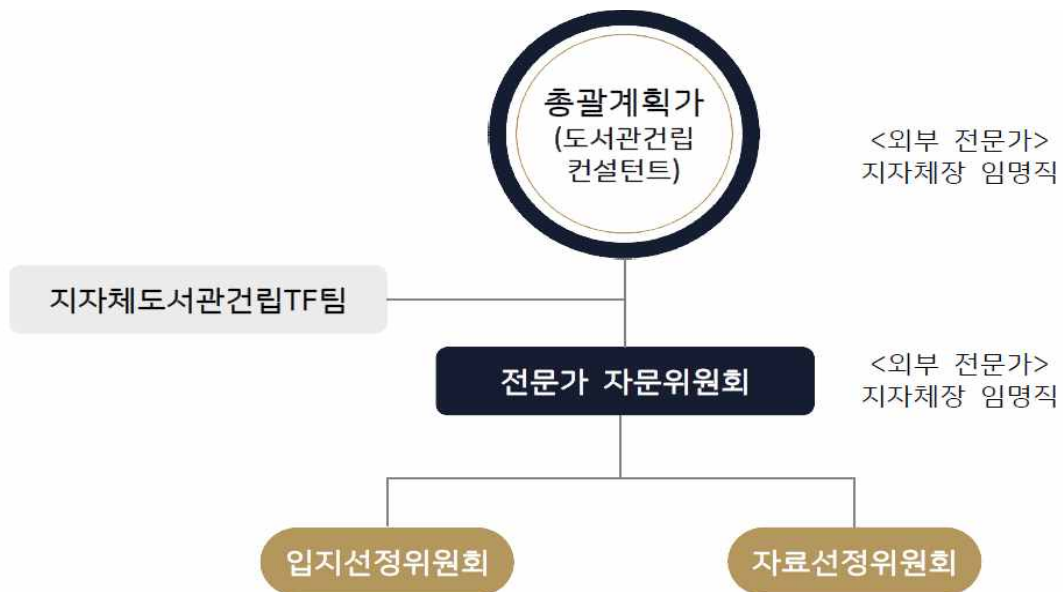
- 청주시 2003년 시립도서관을 개관한 이래 2019년 금빛도서관을 개관하기까지 11개소 도서관을 건축하였으나, 도서관 개관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음.
- 금천동 금빛도서관은 처음으로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주시립도서관내 개관TF팀을 만들어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머물렀음.
- 도서관 설계공모를 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어떤 도서관을 바라는가’를 파악하는 주민욕구조사가 생략되었고, 구체적인 도서관 건립 전략이 부재하였음.

5-2-2.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만들기

- 좋은 도서관에는 도서관을 운영해 온 사람들의 경험과 꿈이 담겨야 하고, 도서관을 이 용해온 사람들,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담겨야 함. 아무리 훌륭한 안목을 가진 건축가가 설계를 한다고 해도 도서관 사서들의 고민과 꿈을 담아내지 못 한다면 건축적인 멋만 내는 작품이 될 뿐,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없음.
-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 한다면 아무리 많은 도서관 건물을 만들어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게 됨. 아무 리 좋은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도서관을 운영해나갈 사서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도서관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새롭게 도서관 공간에 구현된 의도들은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방치될 수도 있음.

5-2-3.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는 도서관 건립 시 그림과 같은 조직의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입지 선정부터 운영 계획까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중시하고 있음.



〈그림 15〉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도서관 건립 추진 조직 제안

<총괄계획가 정의 및 역할>

- 총괄계획가란 개발 및 정비사업, 공공시설 사업, 국가시범사업 등 특정 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함.
- 설계비 1억 이상의 신규 건립 공공도서관은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구체적 활용 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함(단, 리모델링 공공도서관은 설계비에 무관하게 총괄계획가를 위촉·활용함).

문화체육관광부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p 59

5-2-4. 해외사례

전체 세대 1할의 의견 수렴을 한 영국 아이디어스토어

- 1998년 영국 타워햄릿구는 주민들의 낮은 도서관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 조사에 나섰음. 조사는 매우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진행하였음. 조사에 응답한 주민수는 전세대의 1할에 달했음. 2년에 걸친 조사 결과 주민들이 도서관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음. 주민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서 도서관에 가야 한다는 것이 큰 벽이었음.
- 타워햄릿구는 이전에 13개소에 달하던 도서관을 7개소로 줄였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을 만든 결과 도서관 이용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아이디어스토어는 세계적인 도서관 혁신 모델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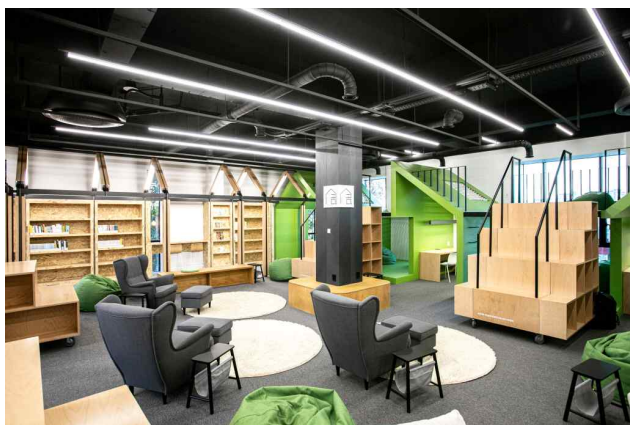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 만든 일본 오부세쵸 마치노테라조

- 오부세쵸(小布施町)는 인구 1만1천명의 작은 자치단체로 도서관이 낡고 불편하여 새로운 도서관 건설에 대한 요청이 많았고, 2004년 초장 선거에서 ‘새로운 도서관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면서 도서관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음.
- 새로운 초장은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모아 ‘도서관건설운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수많은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욕구를 새로운 도서관에 반영시켰음. 위원회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었고 자주 대립하였음. 조용한 도서관을 바라는 의견과 좀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바라는 의견이 다양한 형태로 나뉘었음. 많은 토론과 다른 도서관 방문 등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주민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면서 새로운 도서관은 ‘도서관건설운영위원회’를 통해 주민이 만들었다는 인식의 확립되었음.
- 2010년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하자 곧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인근 지역에서도 몰려와 그해 오부세쵸를 방문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음. 2011년 일본 ‘올해의 도서관’에 선정되었음.

5-2-5. 국내 사례

공간 혁신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우주로1216’

- 2019년 전주시는 시립도서관을 새로 지으면서 3층에 특별히 10대 초반을 위한 트윈세대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트윈세대 공간은 기존 도서관에서 자기 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춘기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이들의 욕구와 선호도를 조사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트윈세대 공간 조성팀은 전주시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과 함께 트윈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워크숍을 진행하여 트윈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간 기획, 설계에 반영하였고, 공간 이름을 ‘우주로1216’ 이라고 정하였음.
- 개관 이후 ‘우주로1216’ 은 트윈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2020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음.
-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0년 생활SOC 공모전에서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 트윈세대 전용공간 <우주로 1216>이 대상으로 선정됨.



<그림 17> 전주 꽃심도서관 우주로1216



<그림 18> 전주 꽃심도서관 우주로1216

총괄계획관을 선임하여 도서관을 건축한 충남도서관

- 충남도서관은 건축과정에서 총괄계획관으로 연세대 임호균 교수(실내건축 전공)를 선임하여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였음.
- 아산시 음봉면에 음봉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총괄계획관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음. 2021년 개관 예정임.

5-3. 공간 구성

5-3-1. 열린 공간의 장점과 활용

- 유럽의 도서관은 대부분 내부에 공간을 구분하는 벽이 최소화되고, 한 지붕 한 공간으로 되어 있음. 복도 등 이동을 위한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가를 이용하거나 최소한의 벽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음. 복층일 경우에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층간에 이동을 위한 시설만 존재할 뿐, 별도의 문으로 차단하지는 않고 있음.
- 도서관 서비스 중 대출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책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중시하는 곳,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관점에 따른 것임.
- 이런 구조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전체로 느낄 수 있게 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구나 온전히 접근할 수 있게 함. 서가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소설이나 실용서를 둘러볼 수 있고, 신문이나 잡지를 둘러볼 수도 있음. 어린이코너나 청소년 코너를 둘러볼 수도 있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거나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음. 모든 세대가 도서관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임.
- 열린 공간은 공간 전체를 자료실로 만들 수 있음. 건물 내에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모든 공간을 열람실화할 수 있어 공간을 매우 넓게 사용할 수 있음.
- 사서 인력이 관리보다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 공간마다 사서가 상주하며 지킬 필요는 없음.
- 좁은 공간에서는 바퀴달린 서가를 이동하여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열람실 내에 커튼식 가림막을 만들어 소모임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곳도 많이 있음.



〈그림 19〉 핀란드 헬싱키 오디(Oodi)도서관 열람실

5-3-2. 청주 시립도서관의 공간 구성 현황

〈표 32〉 청주시립도서관 공간 구성 현황

지역	도서관명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 공간
상 당 구	시립도서관	11,041	5,370	1층 : 아동열람실, 다목적실, 전시실, 카페 2층 : 종합자료 열람실, 정기간행물실(장애인코너), 보존서고 3층 : 정보자료실, 문화교실, 사무실
	상당도서관	3,807	2,681	1층 : 아동열람실, 다목적실, 성인학습실 2층 : 일반열람실, 사무실 3층 : 정기간행물실(디지털, 장애인코너), 보존서고
	금빛도서관	12,528	4,052	지하1층 : 북카페, 보존서고 1층 : 어린이자료실, 공연장, 커뮤니티홀 2층 : 종합자료실(정기간행물), 사무실 3층 :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1,2
청 원 구	오창호수도서관	9,369	8,338	1층 : 아동자료실, 매점 2층 : 사무실, 시립미술관 오창분관 3층 : 대강당, 문화교실 4층 :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장애인코너), 보존서고 5층 : 학습실, 휴게실, 카페
	청원도서관	6,896	2,623	1층 : 아동열람실(이야기방), 성인학습실, 휴게실 2층 : 종합자료실(정기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사무실
	오창도서관	2,739	1,781	1층 : 사무실, 주차장 지하1층 : 보존서고 2층 : 어린이자료실, 다목적실(문화교실) 3층 : 종합자료실(디지털자료, 정기간행물), 소공연장
흥 덕 구	오송도서관	9,881	2,753	지하1층 : 보존서고 1층 : 어린이자료실, 사무실 2층 : 종합자료실(장애인코너, 간행물), 학습실(자유열람실) 3층 : 문화강좌실, 동아리실, 휴게실
	흥덕도서관	2,950	2,480	지하1층 : 다목적실, 문화교실1, 학습실 1층 : 아동자료실 2층 : 종합자료실, 정기간행물실, 문화교실2, 사무실
	강내도서관	1,626	1,140	지하 : 보존서고 1층 : 어린이자료실, 학습실 2층 : 종합자료실, 정기간행물실, 문화교실, 휴게실
	옥산도서관	1,156	679	1층 : 종합자료실, 모자열람실 2층 : 문화강좌실, 학습실, 휴게실, 사무실
	신울봉어린이도서관	1,237	991	1층 : 유아자료실, 초등자료실, 이야기방 2층 : 사무실, 배움터(강당), 동아리방, 어울림터, 보존서고
서 원 구	서원도서관	2,366	2,692	지하1층 : 보존서고 1층 : 다목적실, 가족어울림실 2층 : 아동자료실(꼬마책마루, 곰두리책마루) 3층 : 종합자료실 4층 : 멀티미디어실(정기간행물실, DVD감상코너) 5층 : 문화교실1, 문화교실2, 사무실
	기적의도서관	4,209	969	1층 : 다목적홀, 동아리방 2층 : 열람실, 이야기방, 아가방, 사무실

5-3-3. 자료실의 비율

- 전체적으로 도서관 연면적에 비해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 공간인 자료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 도서관별로 자료실, 아동자료실, 문화교실 등의 공간 비율을 문체부 발행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표 33 > 청주시립도서관 공간별 면적과 비율

도서관	연면적 (㎡)	도서관 유형	자 료 실		아 동 자 료 실		문 화 교 실 등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상 당 구	시립도서관	가-2	1468.3	27.3	353.6	6.6	550.1	10.2
	상당도서관	가-2	662.4	24.7	236.1	8.8	260.5	9.7
	금빛도서관	가-2	731.5	18.1	396.7	9.8	110.4	2.7
청 원 구	오창호수도서관	가-3	759.8	9.1	517.5	6.2	1691.5	20.3
	청원도서관	가-2	717.6	27.4	556.3	21.2	384.3	14.6
	오창도서관	다-1	681.3	38.3	349.8	19.6	159.3	8.9
흥 덕 구	오송도서관	가-2	586.2	21.3	489.6	17.8	855.9	31.1
	흥덕도서관	가-1	493.4	19.9	438.1	17.7	318.8	12.9
	신울봉어린이도서관	가-1	74.4	7.5	244.5	24.7	41.3	4.2
	강내도서관	다-1	371.3	32.6	162.7	14.3	190.8	16.7
	옥산도서관	다-1	236.8	35.6	32.7	4.9	36.0	5.4
	가로수도서관	가-2	827.9	22.8	360.8	9.9	567.1	15.6
서 원 구	서원도서관	가-2	597.8	22.2	272.7	10.1	301.2	11.2
	기적의도서관	가-1						
매뉴얼 권고 비율 (100%)		가-1		28.7		19.4		15.5
		가-2, 다-1		31.4		13.0		15.1
		가-3		30.6		11.8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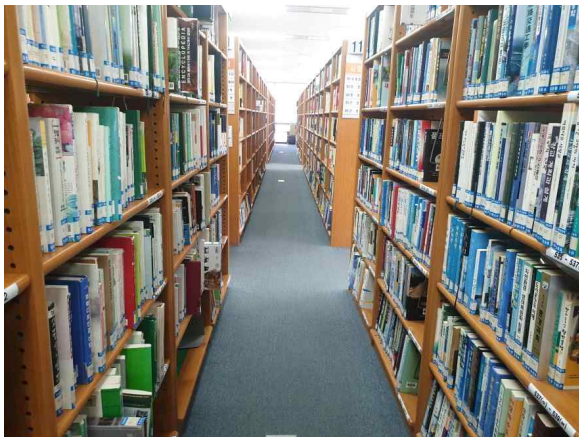
※ 자료실은 일반열람실(종합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디지털열람실, 장애인열람실 등을 포함.

※ 문화교실 등은 문화교실, 다목적실, 소모임실, 학습실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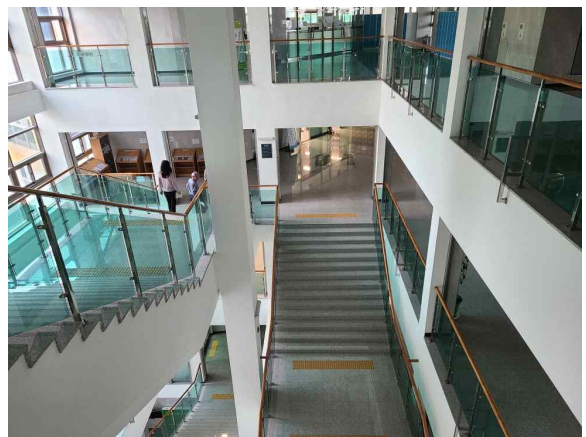
※ 가-1 : 도시형 분관(연 2500㎡ 이하), 가-2 도서형 거점도서관(연 2500~5500㎡)

가-3 : 거점도서관(연 5500㎡ 이상), 다-1 농어촌형 분관(연 2500㎡ 이하)

- 연면적 2,500㎡를 넘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도서관일수록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도서관 면적비율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자료실 면적이 비좁아 자료실에서 서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가 사이도 좁아 책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강함. 서가 사이를 편하게 다니면서 책을 고르고 살펴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음. 신간안내, 추천도서, 주제별 전시 등 다양한 책 소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음.
- 오창호수도서관의 경우 건물 자체가 도서관을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연면적에 비해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문화교실 공간 등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좁음. 반면 계단과 통로, 로비 공간이 지나치게 넓어 공간 효율이 떨어짐.
- 향후 도서관 리모델링시 공간을 가로막는 벽과 문을 없애 공간을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20〉 시립도서관 자료실 서가



〈그림 21〉 오창호수도서관 중앙 계단

5-3-4. 학습실 문제

공공도서관이 독서실로 이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 사회적으로 도서관을 시험공부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 것은 시험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오랜 문화가 빚어낸 결과이고, 오래도록 쌓여온 구습임.
- 실제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취업준비를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사람들임. 이들은 도서관에 열람실 좌석을 차지하고, 휴게실 좌석까지 차지하기도 함.
- 도서관에서 장시간 좌석을 점유하며 시험공부를 하는 이들로 인해 일반 도서관 서비스 이용자들이 열람석을 이용할 수가 없고, 정숙을 유지하는 분위기가 강요되어 도서 상담, 대화, 디지털 자료 이용 등 일상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이 제약을 받게 됨.
- 결국 막대한 예산과 인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시설이 일부 개인들의 독서실화되고, 도서관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심각하게 위축을 받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학습을 하는 것도 권장할 사안임. 도서관 자체가 독서실로 변하는 것은 막아야 함. 유럽에서 도서관 이용이 어떤 식으로든 권장될 것임. 예를 들어 북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해 도서관마다 학습공간, 숙제 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음. 그러나 공간이나 좌석을 예약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중요함.
- 별도의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열람실은 서가와 독서활동 중심의 공간 구성을 통해 도서관 기능을 회복해야 함.



〈그림 22〉 오창호수도서관 학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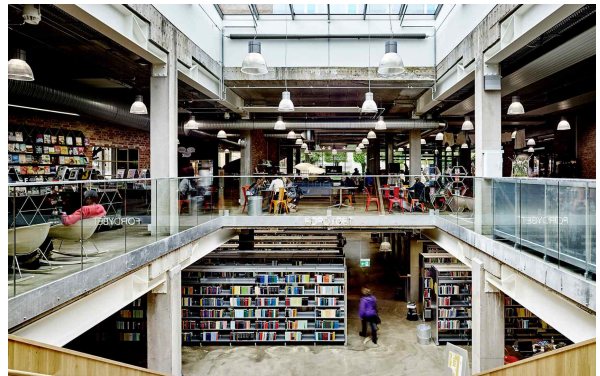


〈그림 23〉 상당도서관 성인학습실

5-4. 도서관 인테리어와 가구

5-4-1. 새로운 도서관 전략 - 제3의 공간, 사회적 거실

- 네덜란드의 도서관 건축 디렉터로 북유럽의 이름난 도서관들을 만들어온 아트 보스(Aat Vos)는 도서관이 사람들에게 집과 직장 다음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함. 이를 확장시키면 도서관은 사회적 거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 도서관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 방문해서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그 핵심은 인테리어에 있음. 사무적인 공간이 아니라 편안한 공간, 아늑한 공간이 되어야 함. 서가는 책을 꺼내보고 싶은 욕구를 자아내게 하고, 서가 옆에서 편하게 앉아 책을 읽어보고 싶은 느낌이 들게 하는 것임.
- 도서관은 새로움이 많은 공간이어야 함. 현대의 도서관은 이미 케케묵은 책을 보관하고 있는 보존서고가 아님. 최신의 정보가 가득하고, 새로운 문화의 흐름이 가장 먼저 도달해 있는 곳이어야 함. 도서관은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와 정보와 시설을 통하여 최신의 흐름을 읽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서관은 자극과 영감을 주는 공간이어야 함. 정보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적음. 정보에 영감을 더해야 진정한 가치인 창조에 이를 수 있음. 도서관은 자료의 전시와 공간 구성을 통해서도 이용자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음.



<그림 24> 아트 보스가 설계한 헤아닝도서관 <그림 25> 아트 보스가 설계한 헤아닝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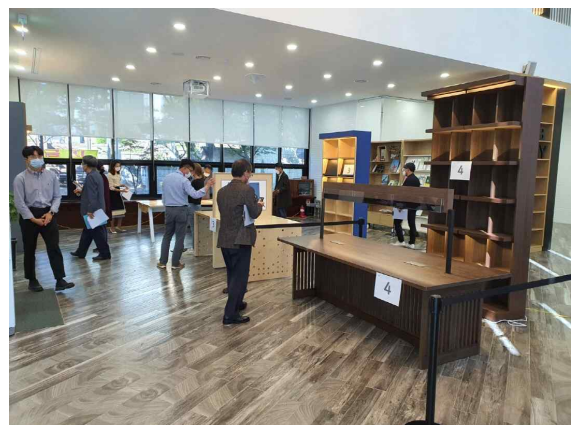
5-4-2. 도서관 가구

도서관에도 개성 있는 가구가 필요

- 도서관에 배치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함께 도서관의 이미지를 만듦. 서가, 탁자, 의자에도 미려한 디자인과 실용성, 창의성을 구현하여야 함. 좋은 가구는 도서관을 다시 방문하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 느낌을 줌. 좋은 가구만으로도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조달을 통해 가구와 물품을 구입하고 있음. 조달을 통해 구입하게 되면 구입할 물품 목록이 제한되고, 물품 선정은 가격으로 결정됨. 전국 어느 도서관을 가도 가구나 물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바로 조달을 통해서 가구와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임.
- 청주시립도서관도 지금까지 거의 모든 가구와 물품을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음. 그런 결과로 도서관 서가나 가구가 거의 비슷한 제품들임.
- 최근 국내에서 가구를 개성 있게 만들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는 도서관들이 늘어나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업무도 많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단순 조달보다는 많이 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려는 자치단체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26〉 전주시 도서관 가구 심사



〈그림 27〉 전주시 도서관 가구 심사

5-4-3. 국내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도서관들

- 2019년 11월에 개관한 의정부미술도서관은 개관 준비를 하면서 가구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여 새로운 도서관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함.
- 전주시는 2019년 개관한 꽃심도서관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여 가구를 설치하였고, 결과적으로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함. 전주시는 모든 도서관 리모델링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28〉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개성 있게 제작한 의정부 미술도서관 서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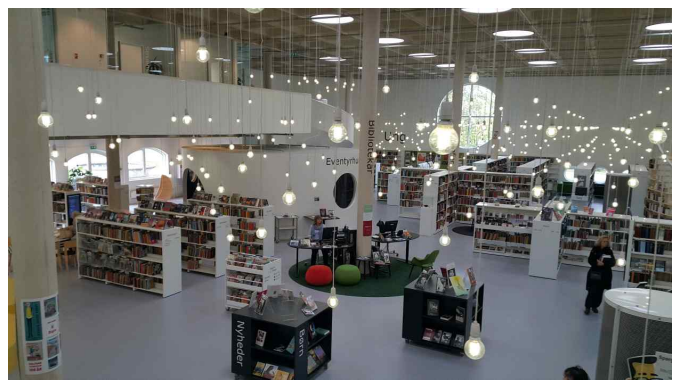
5-4-4. 조명

도서관 조명으로 전략적 설계와 디자인이 필요

- 조명은 실내 분위기를 좌우하는 커다란 요인임. 도서관도 마찬가지임. 도서관은 사무 공간이 아님.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 책이 있는 거실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함. 도서관 조명은 밝기만으로 따져서는 안 됨. 조명도 도서관을 어떤 분위기로 만들 것인가라는 전략적 설계가 되어야 하고, 디자인이 필요함.
- 최근에는 서가에 조명을 넣은 제품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조명기구도 창의적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제안 경쟁 입찰을 통해 도서관의 차별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 청주시 도서관은 대부분 천정 매립형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용 공간, 교실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 금빛도서관에서 간접 조명을 적용한 것은 좋은 시도임.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략적인 조명설계, 조명디자인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음.



〈그림 29〉 일본 무사시노플레이스 조명



〈그림 30〉 덴마크 회어설름도서관의 조명

6. 도서관 자료 관리

6-1 도서관 자료 구입

6-1-1. 자료 관리 매뉴얼

-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도서관에서는 자료 수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관마다 자료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음.
-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의 구입과 보관서고의 운영, 자료의 제적에 대해 체계적인 업무 처리 규정을 만들어 관리자와 이용자가 공유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함.
- 자료의 구입과 관련하여 도서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 특성화 전략과 이용자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운영규정을 만들어 객관화해야 함.
- 도서관이 책보관소가 되어서는 안 됨. 열람실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규모에 맞는 자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함. 통합보존서고를 유지하고, 이용이 없는 도서, 보존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적하여 관리해야 함.

6-1-2. 청주시 자료 관리 현황

- 청주시는 자료관리 매뉴얼이 따로 없이, 각 도서관별로 매년 장서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수서 목록을 선정하고 있음.
- 이용자 신청도서를 정리하여 매주 지역 내 서점에서 구입하고, 나머지를 장서확충 계획에 근거하여 구입하고 있음.
- 청주시립도서관 자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구입 가이드라인은 청주시 조례에 규정된 금서규정을 따르고 있음.

6-1-3. 자료관리위원회 운영

- 청주시립도서관 자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위원은 당연직 8명, 위촉직 2명으로 당연직은 도서관 수서 담당직원이고, 위촉직은 외부전문가이며, 위원장은 시립도서관장이 맡음. 위촉직의 임기는 3년임.
- 2016년 2회(1월 22일, 1월 27일) 2017년 1회(2월 21일), 2018년 1회(12월 20일), 2019년 1회(3월 29일) 개최하여 개관 도서관의 장서목록 선정, 제적도서 심의를 진행하였음.
- 입찰을 통해 도서구입을 할 때는 미리 구입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자료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입찰 구매를 하지 않고 수시 구매를 하면서 자료관리위원회를 자주 열지 않음.
- 자료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를 활성화하여 장서개발 및 장서관리를 체계적,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6-1-4. 희망도서 지역 서점 구입, 책값반환제 도입

- 청주시립도서관은 매년 각 도서관 별로 장서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수서 관련 전문기관, 단체의 추천목록을 참고하여 자료를 구입해 왔음.
-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입찰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희망 도서를 취합하여 수시로 지역 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예산액중 남은 부분을 장서 확충 계획에 맞춰 구입하고 있음.
- 2020년 9월 24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개정하여 책값반환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지역서점에서 구입하여 읽은 책을 21일 이내에 반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책값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민의 요구에 의한 자료구입을 강화한 것으로 실제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1-5. 권역별 장서 특성화의 문제

- 권역별 장서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서관별로 다음과 같이 장서특성화를 지정하였으나, 장서 특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실질적인 장서특성화를 위해서는 장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장서를 관리하고 운영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세부적인 권역별 장서 특성화를 추진하고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표 35〉 청주시립도서관 권역별 장서 특성화 현황

	도서관	주 제	장서특성화 도서(권)	총장서수(권)	비율
상 당 구	시립도서관	예술	19,179	283,312	6.8%
	상당도서관	역사	15,578	131,821	11.8%
	금빛도서관	청소년	2,476	46,295	5.3%
청 원 구	오창호수도서관	예술	7,388	129,174	5.7%
	청원도서관	언어	9,697	148,036	6.6%
	오창도서관	생활건강	2,079	100,319	2.1%
흥 덕 구	오송도서관	기술과학, 향토	8,943	116,060	7.7%
	흥덕도서관	자연과학	12,496	134,320	9.3%
	신울봉도서관	어린이문학	29,129	76,586	38%
	강내도서관	농업	912	69,645	1.3%
	옥산도서관	생명과학(생태)	753	87,139	0.8%
서 원 구	서원도서관	철학, 종교	10,517	122,643	8.5%
	기적의도서관	자연과학, 기술과학	11,219	50,402	22.3%

6-2. 장서 현황

<표 36> 청주시립도서관 연도별 장서량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 증가율
장서량	791,094	943,230	1,272,047	1,336,687	1,439,082	82%
1관당 장서량	79,109	78,603	106,004	111,391	110,699	40%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단위 권)

- 청주시 공공도서관 전체 장서량(인쇄도서만)은 1,969,147권으로,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약 57% 증가함. 2016년에 전년 대비 19%, 2017년에 35% 증가하는 등 장서량이 급증함.

<표 37> 인구수 및 도서관 수 대비 장서량 비교

	인구(명)	장서량(권)	1인당 장서량(권)	도서관수 (관)	1관당 장서량(권)
청주시	839,566	1,991,136	2.37	17	117,126
전 국	51,849,861	115,084,930	2.22	1,134	101,486
충 북	1,600,007	4,453,580	2.78	48	92,783
화성시	815,396	1,661,794	2.04	15	110,786
성남시	942,724	2,423,310	2.57	14	173,094
부천시	829,996	1,728,780	2.08	16	108,049

(2019,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청주시민 1인당 장서량은 2.37권으로, 전국 평균 2.22권보다 많지만 충북 평균 2.78권 보다 0.41권 적음. 비슷한 인구 규모인 화성시와 부천시보다는 약 0.3권 많고, 성남시 보다는 0.2권 적음.
- 장서량 및 1관당 장서량으로 볼 때 청주시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장서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평균 이상의 장서량을 확보하고 있어 장서 확충 실태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표 38〉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연간 구입 도서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 평균
구입도서	49,393	146,977	325,562	69,712	106,021	139,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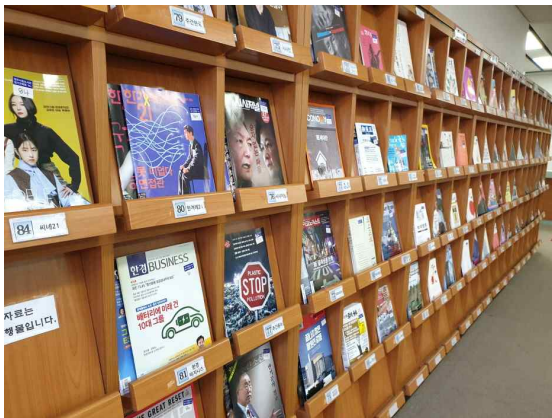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단위 권)

- 청주시립도서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9,533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있음. 전체 장서 중 구입도서의 비율은 연평균 12.0%로, 교육청 도서관의 연평균 구입도서비율 4.5%의 2.7배, 전국 평균 6.5%의 1.8배 수준임. 이는 청주시립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장서를 새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6-3. 정기간행물 수서

6-3-1. 정기간행물 수서의 의미

-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그 시대의 흐름을 기록하여, 사회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종합 기록물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앞장서 구독하여 시민들이 폭넓게 열람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정보를 모아놓은 잡지는 관련 분야의 새로운 동향이나 신기술, 트렌드를 집대성하는 매체로서 해당 분야의 저변 확대 및 기술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지역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특히 그 지역 사회의 기록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장기적으로 자료를 수집 보존할 필요가 있음.



시립도서관 잡지코너



일본 무사시노플레이스 잡지코너

6-3-2. 정기간행물 수서 현황

- 정기간행물은 13개 도서관에서 모두 1,184개 매체를 구독하여 정기간행물실에 비치하고 있는데, 잡지 중 상당수가 정부기관이나 협회 등의 기관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관별로 중복되는 잡지가 많은 실정임.

< 표 39 > 정기간행물 수서 현황

구	도서관	신문	잡지	합계
상당구	시립도서관	30	164	194
	상당도서관	29	82	111
	금빛도서관	23	66	89
청원구	오창호수도서관	26	73	99
	청원도서관	27	84	111
	오창도서관	19	52	71
홍덕구	오송도서관	18	91	109
	흥덕도서관	23	74	97
	강내도서관	23	69	92
	옥산도서관	18	40	58
	신울봉어린이도서관	10	23	33
서원구	서원도서관	25	73	98
	기적의도서관	5	17	22
합 계		276	908	1,184

(2020. 11월 기준, 청주시립도서관 제공, 단위 권)

- 잡지의 경우 별도 관리규정이 없이 과월호를 1년간 보관한 후 다음 해 독서의 달 행사 때 무료로 행사참여자에게 배부하고 있음. 과월호 중 폐기할 것과 보존서고에 보관할 것을 구별하고, 지역에서 발행한 잡지 등은 지속적으로 열람이나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비롯한 정기간행물은 장기 보관하고, 디지털화하여 열람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비하여야 함.

6-4. 자료 제적

6-4-1. 자료 제적 필요성

‘물 좋은 열람실’ 을 만들어야

- 도서관은 물리적으로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는 없음. 새로운 자료를 위한 공간을 계속 확보해야 함.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얻기 쉽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폐기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망가져서 이용할 수 없는 자료는 제적하고 폐기해야 함.
- 2016년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체 장서의 7%까지 제적할 수 있게 되자,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제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서관 평가에서도 총장서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있음.

6-4-2. 청주시립도서관 자료 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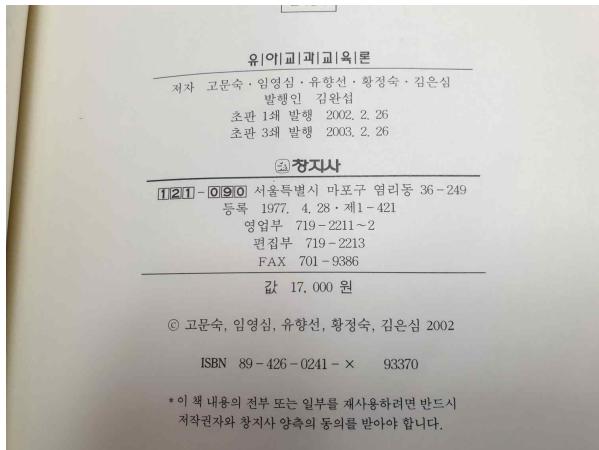
- 청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에서 자료의 폐기와 제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 자료의 7% 내에서 자료를 제적할 수 있음.

< 표 40 > 연도별 제적 현황 비교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평균
제 적 도서수	청주시	3,121	3,513	11,455	7,562	8,004	6,731
	전 국	1,829,334	1,935,224	2,408,835	2,768,629	3,259,127	2,440,230
제적율	청주시	0.4%	0.4%	0.9%	0.6%	0.6%	0.6%
	전 국	1.9%	2.0%	2.3%	2.5%	2.8%	2.3%

- 청주시립도서관 최근 5년간 연평균 제적율은 0.6%로 매우 낮은 편임. 이는 아직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제적대상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적극적인 장서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청주시립도서관의 경우 실용도서 코너를 살펴보면 2000년도 초에 발간되어 이미 쓸모가 없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실용도서들이 많이 꽂혀 있음.
- 적극적인 제적으로 좋은 책, 이용자에게 필요한 책이 숨을 쉴 수 있는 ‘물 좋은 열람실’을 만들어야 함.



〈그림 33〉 개관 당시 구입한 실용서



〈그림 34〉 서가에서 잠자는 오래된 실용서

6-5. 통합 보존서고 설치

6-5-1. 도서관별 보존서고 운영 실태

- 각 도서관에서는 열람실이 좁아 장서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간이 좁아 추가로 장서를 보관할 공간이 여유가 없는 상태임.

<표 41> 시립도서관 보존서고 운영 현황

	도서관	보존서고	운영 현황
상 당 구	시립도서관	2층	장애인열람실을 보존서고로 변경하여 운영
	상당도서관	3층	모빌렉, 서가, 공간 여유가 많지 않음
	금빛도서관	지하1층	공간 여유
청 원 구	오창호수도서관	4층	모빌렉 없음, 여유공간이 많지 않음
	청원도서관	지하1층	모빌렉, 서가, 여유공간 없음. 수해 피해
	오창도서관	지하1층	모빌렉, 서가, 2년 정도 여유 있음.
흥 덕 구	오송도서관	지하1층	
	흥덕도서관	지하1층	모빌렉, 서가 운영, 공간이 많지 않음
	신월봉어린도서관	2층	모빌렉
	강내도서관	지하	모빌렉, 기관대출용, 전집류 보관
	옥산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안에 서가를 설치
서 원 구	서원도서관	지하1층	공간이 좁아 모빌렉이 많지 않음
	기적의도서관		

- 보존서고는 입고전 도서의 보관, 기증도서의 보관, 폐도서 보관, 단체 대출이나 전집 대출용 도서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6-5-2. 통합 보존서고의 필요성

- 각 도서관이 열람실 공간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가 많아 적절한 도서 열람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임.

- 도서관별로 소장하고 있는 이용 빈도가 낮은 도서, 복본 등을 통합보존서고로 이관하여 일괄 관리함으로써 비좁은 도서관의 열람실을 확보하고, 열람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책을 끌어안고 있는 도서관을 탈피해야 함.
- 통합보존서고에서 관리하는 도서는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대출신청에 호응할 수 있음.
- 향후 도서관 리모델링이 계속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통합보존서고의 설치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

6-5-3. 통합보존서고의 대안

- 통합보존서고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함.
- IT와 자동화시스템을 적용한 자동서고시스템(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을 도입하여 첨단 통합보존서고를 만들 가치가 있음.

6-5-4. 해외사례

북봇을 운영하는 제임스헌트도서관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제임스헌트도서관은 소장 자료를 북봇(BookBot)이라 불리는 자동도서운반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
- 1만8천개의 금속제 선반과 네 대의 북로봇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선반은 책과 비디오 등의 자료들의 보관되어 있으며, 모두 바코드 작업이 되어 있음.
- 저장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서가 공간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장서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음.
-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북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도서를 찾아 대출대 위에 올려놓는 시스템임.
- 미국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시스템임.

6-6. 지역 자료 아카이브

6-7-1. 지역 자료 아카이브 필요성

- 도서관은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생산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임.
- 청주시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각종 자료들, 현재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자료, 시민들의 창조적인 노력의 산물들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현재와 후세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할 중요한 책임이 있음.
-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역할을 하나의 공간에 구현하는 라키비움(Larchiveum)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 청주시립도서관에는 향토자료가 시립도서관 1,053권을 비롯하여 13개관에 총 3,492점을 소장되어 있음. 자료의 대부분은 지역 행정기관이나 기관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집이며 특별한 체계나 분류없이 종합적으로 보관하고 있음.

6-7-2. 청주시 기록관과 민간기록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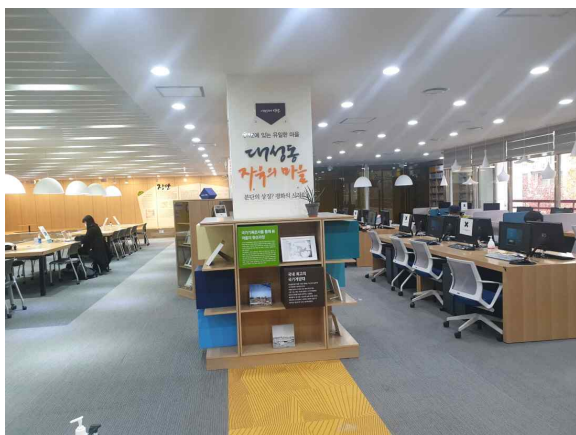
- 청주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의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민원과 소관으로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주시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청주시기록관은 민원과 소관으로 조례가 적용되는 자료의 범위는 행정자료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 정보 자료 중 기록자원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 기록 자료 수집 업무가 배제되어 있음.

6-7-3. 다른 지역 민간기록 자료 수집

- 최근들어 민간기록 자료 수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음.
- 전주시는 2016년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6.09.30.)를 제정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파주시는 2020년 2월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도서관에 기록물관리팀을 설치하여 민간기록물의 수집,

관리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 중앙도서관 내에 ‘라키비움’을 개관하였음.

- 파주시에서는 민간기록물을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파주시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박물관(博物館)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파주시 주민이 생산한 거의 모든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림 35〉 파주중앙도서관에 설치된 라키비움 〈그림 36〉 라키비움 내 아카이빙 스튜디오

6-7-4. 도서관 중심으로 기록자료 관리 체계 수립 필요

- 청주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의 도시라는 위상을 갖고 있고, 이를 근거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하였음.
- 청주시는 기록문화도시를 지향하며 관련 조례를 만들고 별도의 기록관을 처음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치우쳐 있음.
- 멸실되어 가는 민간기록 수집,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기록물 수집, 관리는 도서관의 본래 역할이라는 점을 살려서 도서관 중심의 기록관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운영 인력

7-1. 사서는 왜 필요한가?

7-1-1. 사서의 역할

도서관이 역할을 하려면 교육받은 사서가 필요

-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받은 사서들임. 일찍이 근대적인 공공 도서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건물과 책, 그리고 사서가 도서관의 3대 요소로 꼽힌 것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서가 없이는 도서관은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책 무덤에 불과하기 때문임.
-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서관이 독서실이나 책대여점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님. 도서관이 국민들의 독서문화를 고양하고, 창조적인 하는 역할은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임. 도서관이 국민의 평등한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고, 독서 활동과 성인 학습을 진작하여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창조적인 문화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바라는 것임.
- 어느 나라나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사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수자들에게 사서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찾아오게 하여 이용자로 등록하게 하고, 등록한 이용자가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하게 하는 많은 활동을 해야 함. 좋은 장서를 만들어야 하고, 장서를 소개하는 북큐레이션을 활발하게 해야 하고, 도서관을 더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찾아오게 하고, 도서관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가가는 활동들을 조직해야 함.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서가 필요한 것임.

7-1-2. 유럽에서 도서관 사서의 역할

- 북유럽 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이 이용자와 상담하는 레퍼런스 활동을 중시함. 열람실 사서데스크 앞에는 이용자들이 번호표를 뽑아두고 사서들과 대화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음. 사서 데스크가 열람실 한 가운데 놓여있는 경우도 많고, 사서들은 서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핀란드 헬싱키 도서관 사서들은 ‘?’ 표시가 붙어있는 업무용 조끼를 입고 근무하는데, 이것은 이용자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임.



〈그림 37〉 이용자들이 사서들과 상담을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스톡홀름시립도서관

7-1-3. 일본 시가현 도서관의 변화

- 일본 중부에 있는 시가현(滋賀県)은 1980년도 이전에는 도서관 이용률이 일본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있었지만, 2003년에는 현민 1인당 대출수 8.18권, 장서수 5.39권으로 모두 일본에서 도서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바뀌었음.
- 1980년에 도쿄 히노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던 마에가와 츠네오(前川恒雄)를 현립 도서관장으로 맞이한 것이 전기가 되었음. 마에가와 관장이 매달린 것은 인재(人才). 당시 현대 도서관 관장에는 일반직원을 배치하는 곳이 많지만 “좋은 사서 없이는 좋은 도서관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는 사서를 관장으로서 초빙하였음. 관장 아래서 일하는 사서는 전국에서 공모하였음. 그 결과 도서관의 정규직원에서 차지하는 사서의 비율은 2003년도에 80.5%로 전국1위로 되었고, 이는 그대로 높은 도서관 이용률로 연결된 것임.

7-2. 시립도서관 운영 인력

7-2-1. 청주시립도서관 운영 인력 현황

- 2020년 7월 현재 청주시립도서관에는 총 1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정규직원은 79명이며, 그중 사서직원은 46명, 기타직(행정, 전산, 시설 등)은 33명임.
- 공무원 인원수는 57명이며, 그중 33%인 19명만이 사서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 2018년 이후에는 필요 인력에 대해 정규직 사서 충원을 하지 않고, 임기제로 선발해오고 있음.
- 도서관 관장은 민간 위탁중인 기적의도서관을 포함하여 4개관 관장이 사서직이며, 나머지 9개관이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있음.

〈표 43〉 청주시립도서관 인력 현황

지역	도서관	총원	정규직			공무직			임기제	관장	
			계	사서	기타직	계	사서	비사서		사서	행정
상당구	시립도서관	39	28	11	17	11	5	6	-		1
	상당도서관	10	3	2	1	6	3	3	1		1
	금빛도서관	10	3	3	0	0	0	0	7	1	
청원구	오창호수도서관	18	10	6	4	7	1	6	1		1
	청원도서관	11	4	2	2	7	1	6	-		1
	오창도서관	8	3	2	1	4	2	2	1		1
흥덕구	오송도서관	15	9	7	2	6	0	6	-	1	
	흥덕도서관	9	3	2	1	6	1	5	-		1
	신월봉어린도서관	4	2	1	1	1	0	1	1		1
	강내도서관	8	3	2	1	5	1	4	-		1
	옥산도서관	7	2	1	1	5	1	4	-		1
서원구	서원도서관	10	3	3	0	7	3	4	-	1	
	기적도서관	6	6	4	2	-	-	-	-	1	
합계		155	79	46	33	65	18	41	11	4	9

(2020. 11. 기준, 자료 청주시립도서관, 단위 명)

7-2-2. 관리직의 문제

도서관장을 사서직, 개방직으로 보임해야

- 도서관의 업무는 관련 분야의 학습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이를 총괄하는 관장은 특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관장의 사서자격증 소지 여부는 국가도서관통계에도 반영되고, 도서관 평가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문제임.
- 현재, 청주시립도서관 중에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맡고 있는 곳은 오송도서관, 서원도서관, 금빛도서관 3곳이고, 위탁기관인 기적의도서관을 포함하여 4곳뿐임.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파주, 순천, 수원의 경우 사서관장이 50%를 넘고 있는 것과 비교됨.

<표 44> 관장의 사서자격증 보유자 현황 비교

	청주	전주	김해	파주	의정부	순천	수원
관장중 사서자격증 보유자수 / 전체 관장수	4/13	5/11	3/6	10/17	1/5	7/7	14/24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단위 : 명)

- 특히 규모가 작은 옥산도서관, 오창도서관, 강내도서관, 신울봉도서관 등은 전문사서가 1~2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관장이 행정직이어서 도서관의 실제 서비스 제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부 도서관의 경우 공직사회에서 한직으로 분류하여 퇴직 직전의 행정직 공무원을 위해 자리로 보임되어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는 기관이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 시민에 대한 서비스보다 공무원 조직의 서열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시민중심,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것임.
- 충남도서관은 개관 때부터 관장을 개방직으로 전국 공모를 실시하여 선발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였음.

7-2-3. 공무원의 문제

도서관 공무직은 사서로 충원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 도서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충원해오던 과정에서 2018년 정부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음.
- 청주시는 공무직 전환시점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행정도우미 다급으로 전환하였고, 청주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고 있음. 2020년 9월에는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3명을 다른 기관으로 인사 이동시켰음, 그중 2명이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었음. 새로 시립도서관으로 전입은 공무직은 모두 비사서였음.
- 현재 도서관 소속 공무직 인원수는 57명이며, 그중 33%인 19명만이 사서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 공무직중 비사서는 정규 사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분장에 많은 제약이 따름. 이들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행정, 장서개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이용자 상담 등을 할 수 없고, 주로 열람실 지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임.
- 도서관 운영 인력에 사서 교육을 받은 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규직 사서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무직이라도 사서 교육을 받은 자원을 배치하여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시립도서관 공무직은 사서교육을 받은 자로 충원하고,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사서 교육, 업무 교육을 강화하여 도서관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7-2-4. 다른 지역 사례 - 보조사서제 운영

- 경기도 의정부시는 도서관에서 근무할 공무직 선발시 사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보조사서로 운영해오고 있음.

7-3. 사서 운영 현황

7-3-1. 도서관수 증가에 따른 사서수 변동

<표 45> 년도별 사서수 변동 비교

지역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10년간 변화율
청주시립 ¹⁾	정규직 사서수	21	22	24	31	42	44	110%
	도 서 관 수	5	6	7	10	12	13	160%
	1관당 사서수	4.2	3.7	3.4	3.1	3.5	3.4	-19%
전국	1관당 사서수	4.3	4.2	4.2	4.2	4.3	4.5	3%
화성시립	정규직 사서수	34	37	37	36	52	67	97%
	도 서 관 수	6	8	10	10	12	14	133%
	1관당 사서수	5.7	4.6	3.7	3.6	4.3	4.8	-16%
부천시립	정규직 사서수	29	43	45	48	57	60	107%
	도 서 관 수	7	9	9	10	13	14	100%
	1관당 사서수	4.1	4.8	5.0	4.8	4.4	4.3	3%
성남시립	정규직 사서수	48	61	54	57	59	64	33%
	도 서 관 수	5	7	7	11	11	13	160%
	1관당 사서수	9.6	8.7	7.7	5.2	5.4	4.9	-49%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단위 명)

-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청주시의 시립도서관수는 5개관에서 13개관으로 160% 증가한 반면, 정규직 사서는 21명에서 44명으로 110% 증가에 그쳤고, 1관당 사서 수는 4.2명에서 3.4명으로 19% 떨어졌음.
- 도서관 1관당 사서수를 비교하면 청주시는 3.4명이고, 화성시는 4.8명, 부천시는 4.3명, 성남시 4.5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 훨씬 적으며, 2019년 전국 평균 1관당 사서 수는 4.5명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편임.

1) 2009 ~ 2013년 수치는 구 청원군 지역을 제외한 수치임

7-3-2. 다른 도시와 비교

〈표 46〉 주요 도시 사서직 현황 비교

	청주시	전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순천시	수원시	부천시
전체인구 (2019)	839,566	654,394	454,040	451,868	279,598	1,194,465	829,996
도서관수	13	12	17	5	7	24	14
장서수	1,439,082	1,188,930	1,118,760	545,712	662,002	2,866,455	1,485,864
전체직원	188	155	222	95	96	366	255
사서	44	43	58	32	25	88	59
사서비율	23.4	27.7	26.1	33.7	26.0	24.0	23.1
사서1인 관리장서	32,706	27,650	19,289	17,054	26,480	32,573	25,184
사서1인 봉사인구	19,081	15,218	7,828	14,121	11,184	13,573	14,068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인구는 통계청 자료)

- 단순 비교해서 청주시의 전체 도서관 직원 중 사서 비율은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낮은 편에 속함. 비사서인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함.
- 도서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서 1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관리장서가 비교대상 도시 중 가장 많음. 장서수가 현격하게 많은 수원시보다 많음.
- 사서 1인당 봉사인구에서도 청주시가 비교대상 도시 중 가장 많음.
- 파주시는 1면 1도서관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도서관 운영 인력을 정규직 사서로 적극적으로 임용하여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인원이 많음. 사서 1인당 봉사인구수에서 가장 잘 드러남.

7-3-3. 적정 사서 인원 산출

- 도서관법 시행령은 도서관에 적정한 사서 인력을 산출하기 위해 도서관 건물 면적과 장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봉사인구수를 기준으로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과 너무 차이가 많아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문체부에서 발행한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권고방식(인구 2,500명당 일반직원 1명, 일반직원의 1/3 이상의 사서직원 배치) 수정하여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매뉴얼에서 도서관 최소 인력 산출 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도서관당 3명의 사서를 기본으로 하고, 봉사대상 인구 7,500명당 1명의 사서를 증원하는 것임. 비사서는 사서 인력의 1/3으로 산출함.
- 이런 기준으로 청주시립도서관의 적정 사서 인력을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7> 문체부 공공도서관 운영 매뉴얼 산정 도서관별 적정 사서수

지역	도서관	봉사 가능 지역	봉사인구	사서수
상당구	시립도서관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5개면	121,527	19
	금빛도서관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탑대성동	52,657	10
	상당도서관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25,283	6
청원구	청원도서관	내덕1,2동, 울랑.사천동, 오근장동	87,643	15
	오창호수도서관	오창읍	69,235	12
	오창도서관	오창읍	69,235	12
	내수도서관	내수읍, 북이면	24,444	6
흥덕구	오송도서관	오송읍	23,438	6
	흥덕도서관	강서1동, 복대1,2동, 사창동	111,706	18
	가로수도서관	가경동, 성화.개신.죽림동	96,807	16
	강내도서관	강내면	10,888	4
	옥산도서관	옥산면	18,060	5
	사각지대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 운천.신봉동	65,411	12
서원구	서원도서관	분평동, 수곡1,2동, 모충동, 산남동, 남이, 현도면	114,487	18

- 기적의도서관과 신울봉어린이도서관은 봉사지역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3명을 최소 사서수로 산정함.

7-4. 사서 교육

7-4-1. 사서 교육의 필요성

- 장서 개발,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 IT 서비스 개발 등 도서관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춘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서의 교육 및 연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함.
-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방안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 교육이 필요함.
- 도서관 운영 인력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분장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4-2. 청주시립도서관 사서 교육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사서업무에 관한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어야 함.
- 시립도서관내에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상시 학습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음.
- 사서들이 외부 교육을 수강하고자 해도, 일부 도서관에서는 사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부교육을 수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표 48〉 시립도서관 직원 교육 현황

	교 육 주 제	횟수	참여인원	비고
2019년	공간, 장서, 서비스 등 도서관 혁신 교육	6회	217명	공무직 포함
	독서경영강좌	7회	582명	
	친절교육	4회	32명	
2020년	차이나는 공무원 UP클래스	5회	115명	

7-4-3. 기타직 직원 교육

- 전산직과 시설직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견학, 연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8. 도서관 서비스

!

8-1. 북스타트와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8-1-1. 북스타트 운동의 필요성

- 북스타트 운동은 아기들이 영아기부터 책과 친하게 해주어, 자라서도 책을 친근하게 여기게 하자는 취지로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독서문화사업임.
-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진 아기들은 책을 좋아하는 아동으로, 청소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밝혀짐.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림책과 이야기책을 가까이 하고, 이야기 들려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중력이 높고 언어습득도 빠르다는 사실이 알려짐. 북스타트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보고까지 나와 있음. 이런 연구 결과들이 알려지고 확인되면서 북스타트 운동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음.

8-1-2. 우리나라의 북스타트 운동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북스타트코리아’를 결성하여 체계적인 연구진과 자문단을 구성하고,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지자체에 보급해오고 있음.
-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약 66%의 지자체, 300여 개의 도서관이 약 1,000개의 연계 기관과 연대하여 매년 15만 명 이상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있음.
- 문체부에서는 매년 북스타트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도 북스타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도 내 각 시군에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8-1-3. 청주시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

- 충청북도는 이시종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시군에서 북스타트 사업을 하도록 도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청주시는 2011년 북스타트코리아와 함께 북스타트 사업을 도입하여 5년간 사업을 지속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로 인해 북스타트코리아와 관계를 끊고,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청주형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북스타트 사업은 주관기관인 북스타트코리아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도서구입시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회계규정에 따라 북스타트코리아로부터 도서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독자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본따 ‘청주형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임.
-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은 오송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총 258,720 천원으로 북스타트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20%가 반영되어 있음.

8-1-4. 북스타트 사업으로 복귀의 필요성

- 북스타트 사업은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북스타트코리아의 사업 추진 내역은 세계적인 독서진흥사업의 지표가 되고 있음.
- 북스타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연구진에 의한 도서 개발, 운영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사업 수행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사업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음.
- 청주시는 ‘청주형 북스타트’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며, 도서 선정,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려움.
-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도서구입시 각 도서관 별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북스타트 도서구입을 위한 적극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북스타트 사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함.

8-2. 청소년, 청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8-2-1. 자라면서 책에서 멀어지는 세대

-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자료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지역에 자리를 잡은 작은도서관도 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어린이 독서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들이 10대가 되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책보다 동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멀티미디어에 이용에 빠지게 되고, 학교 공부에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독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음.
- 10대 후반부터 청년의 시기까지도 시험 위주의 교육과 취업준비에 매몰되어 결국 어린 시절에 쌓았던 독서의 습관을 잃어버리게 됨.
- 공공도서관에서도 이들 세대를 책의 세계로 불러들이고, 독서활동을 지속하게 할 공간이나 서비스가 거의 없는 실정임.

8-2-2.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최근 들어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소년문화의집, 청년활동 지원센터 등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는 주로 일탈 방지, 창업 지원 등 문제 발생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청소년 시기나 청년기에 독서를 바탕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고, 꿈을 찾아 노력하게 하는 문화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활동을 진작하는 기반은 도서관에 마련되어야 함.
-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책 읽는 청주’의 행사성 프로그램에 불과함.

8-2-3. 다른 지역의 사례들

-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티오프레톤(Tiotreton), 말뫼도서관에 있는 발라간(Balagan),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비블리오 퇴엔(Biblio Toyen)은 모두 10~14세의 사춘기 세대 전용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임.
- 북유럽 도서관에서는 대부분 도서관 안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음악 공간, 게임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청년들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중심으로 꾸며진 도서관인 ‘라바’ (LAVA, 용암)가 있음.
- 도서관문화재단씨앗에서는 공공도서관에 10대 초반을 위한 트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주 꽃심도서관에 ‘우주로1216’ 을 지원하였고, 현재 수원시와 세종시 도서관에서 공간 조성을 진행하고 있음.
- 마포중앙도서관은 건물 내에 다양한 공간과 설비를 갖춘 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개관한 공주시적의도서관은 여가부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 꿈창작소’ 와 같은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011년 개관한 서울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결합된 복합시설임.

8-2-4. 성안길 상가에 도서관 공간 조성

-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성안길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성안길 롯데시네마점 건물을 임대하여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함..

8-3. 상호대차서비스 및 타관 반납 서비스

모바일검색 서비스와 함께 이용자 증가

- 상호대차서비스는 도서관 간에 협약으로 소장한 자료를 서로 빌려주는 서비스이고, 타관반납서비스는 반납을 도서관 간에 통합으로 처리하는 제도임.
- 청주시는 2018년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알파스로 교체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통합 도서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상호대차서비스와 타관반납서비스를 도입하였음.
- 청주시내 상호대차 / 타관반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13개 시립도서관과 거점 3개 작은도서관(봉명, 봄눈, 두꺼비 생태), 스마트도서관 3개소 (홍덕구청 앞, 농협물류센터 내, 성화개신죽림동행정복지센터 앞)임.
- 상호대차와 타관 반납 서비스는 모바일 도서검색 서비스와 함께 연결되어 이용이 크게 늘고 있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개월 정도 운영되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1.4%가 증가하였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대출과 반납을 위한 자료 배송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공공도서관은 주 5회, 작은도서관은 2회(수, 금) 순환 배송함. 현재 1인당 2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가 필요함.

<표 50> 연도별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연도	요 청		제 공		타관 반납		운영월	비고
	누적실적	월평균	누적실적	월평균	누적실적	월평균		
2018	5,539	462	5,489	1,098	15,189	3,038	5개월	8월시행
2019	26,337	2,195	30,986	2,582	94,954	7,913	12개월	
2020	35,311	3,531	37,274	3,727	97,013	9,701	10개월	

(자료 청주시립도서관 제공, 단위 권)

〈표 51〉 2020년 도서관별 상호대차, 타관반납 이용 현황

구	도서관 명	요청	제공	타관반납	비 고
상 당 구	시립도서관	1,668	6,316	9,524	
	상당도서관	1,238	3,865	7,237	
	금빛도서관	3,174	2,222	11,334	
청 원 구	오창호수도서관	3,087	3,813	8,806	
	청원도서관	1,807	2,541	7,702	
	오창도서관	835	2,564	2,627	
홍 덕 구	오송도서관	1,605	3,441	4,007	
	홍덕도서관	3,825	2,651	12,873	
	강내도서관	1,023	2,584	3,914	
	옥산도서관	514	2,086	2,597	
	신울봉도서관	560	1,529	4,136	
서 원 구	서원도서관	2,773	3,086	8,137	
	기적의도서관	558	472	3,148	
스마트		12,037	-	9,799	농협물류, 홍덕구청, 성화동
작은도서관		607	104	1,172	봉명, 봄눈, 두꺼비
합 계		35,311	37,274	97,013	

(2020년 10월 31월 기준, 청주시립도서관 자료, 단위 권)

8-4. 다른 기관 협력

8-4-1. 지역 내 학교와의 관계

- 책을 통해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훈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익히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함.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고, 또한 도서관임.

〈표 52〉 도서관별 학교 현황

구	도서관	이용대상 지역(행정동)	주변 학교(도보 이동 가능 범위)
상당구	시립도서관	용암1, 2동, 영운동, 5개면	원봉초, 용암초, 교동초, 상당초 원봉중, 용암중, 청석고, 상당고
	상당도서관	성안동, 중앙동, 탑대성동	주성초, 우암초, / 대성여중 / 대성여상, 대성고, 청주공고
	금빛도서관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탑대성동	동주초, 산성초, 금천초, 용성초 동중, 금천중, 용성중 / 금천고, 주성고
청원구	오창호수도서관	오창읍	비봉초, 청원초, 각리초 / 각리중, 양청중, 청원고, 양청고
	청원도서관	율량사천동, 내덕1,2동, 우암동, 오근장동	새터초, 덕성초, 사천초 / 중앙여중, 상업정보고
	오창도서관	오창읍	오창초, 창리초, 오창중, 오창고
흥덕구	흥덕도서관	북대1,2동, 강서1,2동	진흥초, 증안초, 솔밭초, 직지초 / 북대중, 솔밭중, 서원중 / 흥덕고
	오송도서관	오송읍	만수초, 오송중, 오송고
	신월봉어린도서관	북대동	서원초, 북대초, 가경초
	강내도서관	강내면, 강서1동	월곡초, 미호중
	옥산도서관	옥산면	옥산초, 옥산중
서원구	서원도서관	산미분장동, 산남동, 남이면, 현도면	남평초, 분평초, 원평초, 남성초 / 남성중, 원평중 / 충북고, 하이텍고
	기적의도서관	수곡1, 2동	한솔초, 수곡초

- 관내 학교와 협력하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임. 이를 위해 사서는 관내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

고,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불러 도서관 이용을 안내하기도 하고, 학교 학습 과정에 맞춰 도서를 전시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음.

- 코로나 발생 이전 청주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별로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안내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으나, 시립도서관이 추진하는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않았음. 코로나 진정 이후 관내 학교와 교류를 정례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8-4-2. 교육청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 연결

- 청주시에는 충북교육청 소속의 충북중앙도서관, 충북교육문화원, 미원도서관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주시립도서관과 업무 협력이 되지 않고 있음.
- 청주시민을 위해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기관의 벽 때문에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의 입장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임.
- 현재 청주시에서는 매년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청주시립도서관이 교육청도서관과 협력하여 상호대차 및 타관반납 서비스를 요구해야 함.

8-4-3. 대학도서관과 협력

- 청주시에는 7개의 대학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청주 시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있음.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학교도서관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시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음.

8-4-4. 병원도서관 지원

- 입원환자들이 많은 대형병원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임.
- 북유럽에서는 도시마다 병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 2019년에 충북대병원에서 병원도서관을 개관하였음. 병원 도서관에 대한 협력,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청주시내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8-4-5. 작은도서관 지원

- 청주시에는 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음. 공립도서관은 청주시 각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에서는 도비 매칭 도서구입비를 책으로 지원하고 있음.
- 공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시립도서관과 관계되지 않아 각종 통계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인력 운영, 장서 관리, 서비스 관리에서도 한계가 많음. 시립도서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립작은도서관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2020년 10월 현재 45개 작은도서관이 가입되어 정보교류, 교육, 책잔치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위해 작은도서관 평가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운영평가위원을 선임하여 2월에 작은도서관 전체를 현장 실사하고, 평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음.
- 순회사서 2명을 선발하여 개관하는 작은도서관 자료 등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4개 구청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매년 여성인턴을 선발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으나, 배정인원을 작은도서관에 배치하지 않고, 시립도서관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작은도서관 지원 업무는 작은 예산을 쪼개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사업수는 많아 보이지만 선정 과정, 사업 수행, 서류작업 등에서 행정업무만 많은 뿐 실제 사업효과는 크지 않음.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비를 중액지원으로 하여 작은도서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53〉 2020년 청주시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

사 업 명	예산액	내 용
합 계	627,888	
운영비 지원	68,870	22개소 균등 지원
도서 및 서가 구입비 지원	108,640	28개소 균등 지원
도비 지원 도서구입	67,500	36개소 균등 지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9,700	10개소 균등 지원
독서동아리 육성 지원	4,850	5개소 균등 지원
작은도서관 책 잔치 지원	15,520	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
작은도서관 소식지 제작 지원	11,640	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
신규작은도서관 도서정리용품 지원	2,500	신청시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 등	950	시립도서관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3,000	시립도서관 사업
작은도서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4,000	시립도서관 사업
찾아가는 문화강연 및 공연	4,000	시립도서관 사업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1,500	시립도서관 사업
운영평가심사 수당 등 기타 경비	2,758	시립도서관 사업

(자료 청주시립도서관, 단위 천원)

8-5. 지식정보 취약 계층 대상서비스

8-5-1. 장애인 서비스

- 장애인을 위한 공간은 별도로 실을 구분한 경우, 정기간행물실에 마련한 경우, 일반자료실에 코너로 설치한 경우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음. 장애인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일반자료실내에 통합하여 장애인의 자료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표 54> 장애인 이용 시설 현황

구	도서관명	장애인실 운영	장애인용특수자료수		장애인용 장비
			인쇄자료	비도서	
상 당 구	시립도서관	정기간행물실 내	4,456	1,178	
	상당도서관	정기간행물실 내	2,484	0	높낮이책상, 전용키보드, 화면확대기, 점자도서, 마우스
	금빛도서관	종합자료실1 내	642	0	내년도에 국비 신청 예정
청 원 구	오창호수도서관	디지털자료실 내	2,115	0	
	청원도서관	일반자료실 내	2,512	0	
	오창도서관	종합자료실내	1,243	0	점자책, 화면확대기
흥 덕 구	오송도서관	종합자료실 내	1,714	1,236	점자책, 화면확대기, 녹음도서
	흥덕도서관	정기간행물실 내	3,144	975	화면확대기, 점자책
	강내도서관	종합자료실내	1,138	1,374	화면확대기
	옥산도서관		605	0	
	신울봉어린이도서관		559	0	
서 원 구	서원도서관	멀티미디어실	2,291	0	대활자본, 점자도서
	기적의도서관		68	67	

(자료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 거의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 이용을 위한 배리어프리를 구현하고 있고, 국가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 독서를 위한 보조기구를 비치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의 이용은 많지 않음. 장애인들은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임.

- 책나래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임. 청주시립도서관이 제공한 책나래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5> 책나래 서비스 제공 현황

구	도 서 관	2019년			2020년		
		택배건수	이용자수	제공건수	택배건수	이용자수	제공건수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27	8	80	38	14	115
	상당도서관	17	7	52	24	12	68
	금빛도서관	-	-	-	2	1	7
청원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14	4	54	11	5	38
	청원도서관	13	8	44	12	9	31
	오창도서관	21	9	62	14	8	32
홍원도서관	오송도서관	14	7	50	14	9	38
	흥덕도서관	22	9	82	16	8	41
	강내도서관	13	7	21	16	9	28
	옥산도서관	16	8	43	16	8	37
	신울봉어린이도서관	25	7	114	7	5	31
서원도서관	서원도서관	18	10	53	14	10	34
	기적의도서관	4	2	14	1	1	3
합 계		204	86	669	185	99	503

(2020년 11월 16일, 청주시립도서관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지개도서관에 대해 청주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고, 시립도서관에서는 업무 관계가 없음. 장애인 도서 서비스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문화정보정책 서비스로 인식되어야 함. 무지개도서관과 협력 및 업무 교류가 필요함.

8-5-2 노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0년 9월 기준으로 청주시 전체 노인인구 비율은 13.2%이고, 구별로는 상당구 (15.4%), 서원구(14.8%)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음.
- 동별로는 면단위 지역과 도심속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음.

〈표 56〉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 지역

구	행정동, 면	전체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상당구	중앙동	5,802	1,451	25.0
	성안동	7,017	1,916	27.3
	탑, 대성동	9,057	2,176	24.0
	영운동	10,974	2,225	20.3
	남일, 가덕, 문의, 가덕, 미원	22,388	7,544	33.7
청원구	내수북이	24,444	5,187	21.2
	우암동	12,464	2,826	22.7
	내덕1동, 내덕2동	20,488	4,536	22.1
서원구	남이, 현도	13,606	3,379	24.8
	수곡1동	13,808	3,010	21.8
	수곡2동	13,739	2,839	20.7

-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노인복지관, 지역복지관에서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프로그램이 건강, 취미 관련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음.
- 도서관에서는 정기간행물코너를 이용하는 시니어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저시력자를 위한 대활자본, 확대경 등을 갖추고 있음.
-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서비스는 물론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많은 업무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있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꼭 필요하다.
- 미디어의 다원화로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가짜뉴스가 넘쳐 정보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도서관에서 시니어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야 함.

8-5-3. 다문화 서비스

모국어 도서, 언어카페, 숙제교실 등 필요

- 2020년 9월말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12,963명임. 이들 거주 형태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지역별로 외국인들의 거주 현황에 맞추어 모국어 도서를 갖추고, 언어카페, 자녀들의 학교 교육을 위한 숙제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국어도서를 갖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57> 청주시 외국인이 많은 지역 거주 현황

행정구역	외국인수	행정구역	외국인수	행정구역	외국인수
상당구 전체	1,080	청원구 전체	4,010	흥덕구 전체	5090
용암1, 2동	568	내수, 북이	828	사창동	938
		오창읍	1,376	북대1,2동	1,942
서원구 전체	2,783	내덕1,2동	1,372	가경동, 강서1동	575
남이, 현도면	355	울량,사천동,오근장	434	봉명1,2동,송정동	1385
청주시 전체	12,963				

(2020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현황 기준, 단위 명)

<표 58> 도서관별 다문화도서 소장 현황

구	도서관	다문화도서 소장권수	구	도서관	다문화도서 소장권수
상 당 구	시립도서관	5,294	흥 덕 구	오송도서관	2,709
	상당도서관	2,085		흥덕도서관	1,520
	금빛도서관	803		강내도서관	2,484
청 원 구	오창호수도서관	4,055		옥산도서관	1,909
	청원도서관	2,126		신율봉어린이도서관	921
	오창도서관	2,580	서원도서관	3,176	
			서원구	기적의도서관	90
청주시 합계		29,752			

9. 디지털 시대 정보서비스

9-1. 도서관 디지털화 도입

9-1-1.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구축

- 청주시립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을 충실하게 구축해나가고 있음.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무인대출 반납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모든 도서관에서 RFID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통합자료검색 시스템을 운영하여, 작은도서관까지 확장하여 인터넷을 통한 도서 검색 및 예약, 상호대차서비스, 책나래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대출 신청,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제공했음.
-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13개 도서관을 연결하여 정보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고, 행사 안내 및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표 60> 도서관 IT 설비 및 서비스 현황

	도서관명	이용자용 컴퓨터 수(대)	무선 인터넷	RFID 시스템 구축현황	무인자동 대출반납기(대)	모바일 도서관서비스
상 당 구	시립도서관	69	유	구축	7	유
	상당도서관	32	유	구축	3	유
	금빛도서관	20	유	구축	7	유
청 원 구	오창호수도서관	33	유	구축	5	유
	청원도서관	23	유	구축	4	유
	오창도서관	18	유	구축	6	유
흥 덕 구	오송도서관	26	유	구축	3	유
	흥덕도서관	19	유	구축	5	유
	강내도서관	10	유	구축	3	유
	옥산도서관	3	유	구축	2	유
	산울봄어린이도서관	3	유	구축	3	유
서 원 구	서원도서관	24	유	구축	5	유
	기적의도서관	4	무	구축	1	유
합계		284	-	-	54	-

9-1-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과 모바일웹 접속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모바일웹 접속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접속은 2018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가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 안내, 도서 검색, 행사 안내 등에 치우쳐 있음.

<표 61> 연도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접속자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홈페이지 접속	587,768	688,491	1,128,668	1,396,630	1,280,616	863,087
모바일웹 접속			396,811	657,614	1,313,416	1,028,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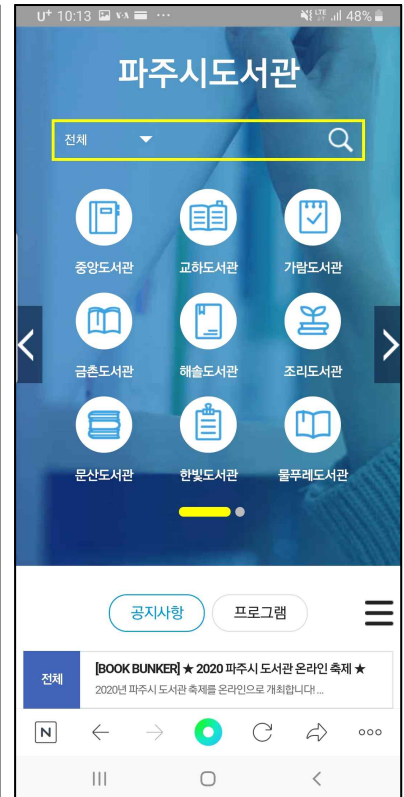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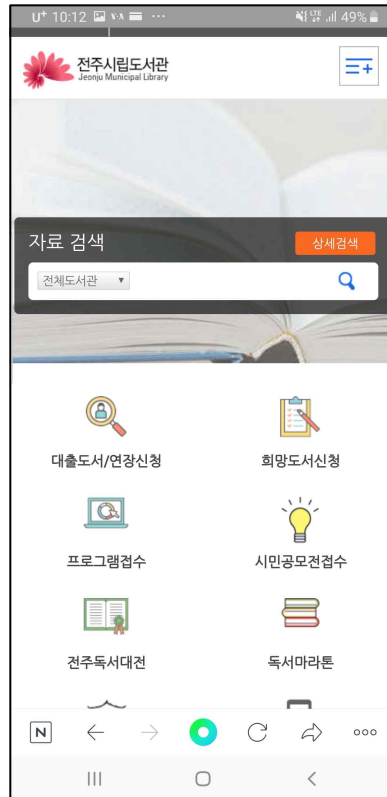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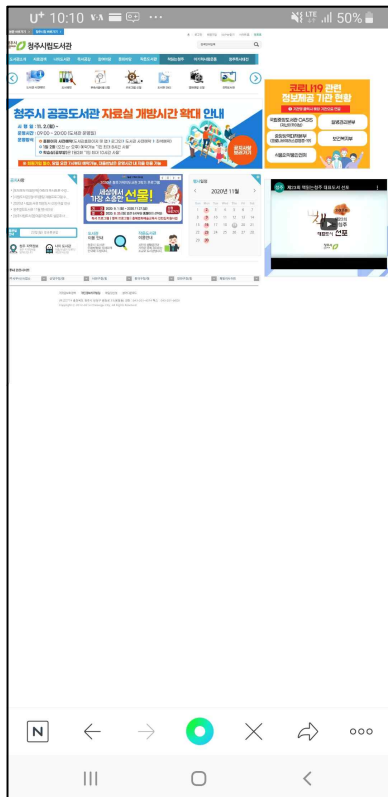
(청주시립도서관 자료 제공, 2020년은 10월 31일 기준, 단위 횡수)

9-1-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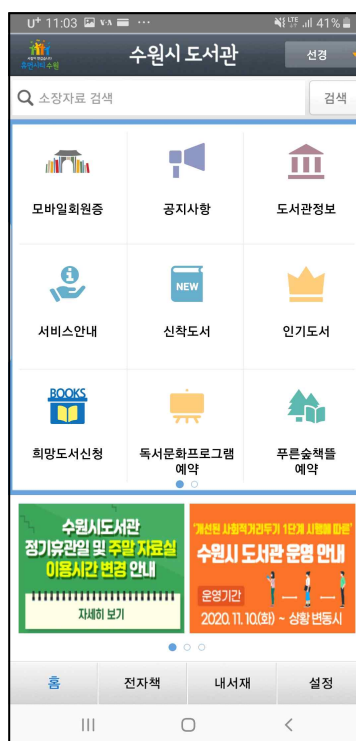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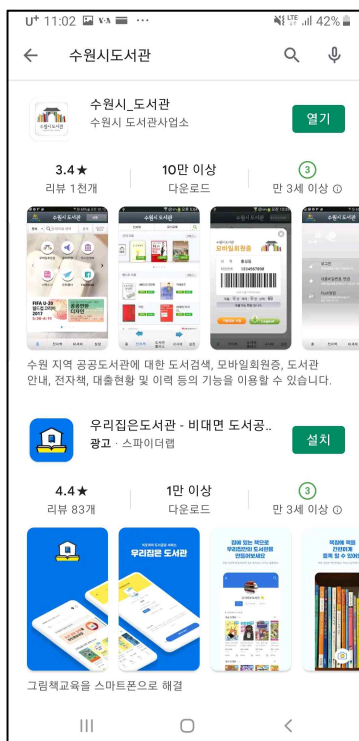
- 인터넷홈 페이지도 가상의 도서관 공간으로 인식해야 함. 화면 구성을 업무관리형에서 정보제공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단순히 서비스 신청하는 화면 구성을 지양하고, 추천도서 구성, 프로그램 안내, 독서관련 이벤트 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함.
-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함. 스마트폰에 맞춘 반응형 홈페이지 개발이 시급함.

9-1-4. 모바일앱 및 SNS 개발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기존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도서관 서비스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함.
- 모바일앱을 통해 독서이력 관리, 도서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견 청취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서비스 안내, 이용자 소통을 개발해야 함.



〈그림 38〉 청주시립도서관 모바일웹 〈그림 39〉 전주시립도서관 모바일웹 〈그림 40〉 파주시도서관 모바일웹



〈그림 41〉 Play 스토어검색 〈그림 42〉 수원시도서관 모바일웹

9-2. 디지털 자료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전자자료의 확충이 시급

- 청주시립도서관에서는 전자책을 영구히 소장하는 것과 1년간 임대하여 구독하는 것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소장형 전자책은 도서관에서 영구소장하는 것으로 도서 1권당 사용자수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구독형 전자책은 1년간 임대하여 구독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도서 1권당 사용자수는 무제한임.

<표 62> 청주시립도서관 전자자료 구축 현황

구 분	전자책(E-book)			오디오북
	소장형	구독형	합계	
2019년	6,999	-	6,999	1,023
2020년(1~10월)	7,264	1,000	8,264	1,084

(자료 : 청주시립도서관, 단위 : 종)

- 2019년 디지털자료 보유 현황을 도시별로 비교하면 청주시는 비교 대상 다른 도시에 비해 전자도서 보유가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도서관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전자도서 보유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음.

<표 63> 디지털 자료 보유 현황

	전자도서(종)	전자저널(종)
청 주 시	6,999	3,784
파 주 시	14,567	0
고 양 시	48,978	3,389
수 원 시	19,732	3,306
성 남 시	42,425	2,425
전 주 시	1,959	-
순 천 시	16,683	-
김 해 시	9,006	3,364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단위 : 종)

- 전자저널은 학회지, 학술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와 1년씩 계약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정보자료실에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전자책 이용 현황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3개월간 도서관이 휴관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었음. 2019년 1월~10월 이용건수는 39,628건에 비해 2020년에는 51,806건으로 30.7%가 증가하였음.

<표 64> 2019년 ~ 2020년 전자책 이용현황

구 분		2019년(전체)		2020년(1~10월)	
		이용자수	이용건수	이용자수	이용건수
전자책	소장형	16,726	47,855	15,300	47,100
	구독형	-	-	3,013	4,706
	합 계	16,726	47,855	18,313	51,806
오디오북		14,942	14,942	19,229	19,229

(자료 : 청주시립도서관, 단위 : 건)

10. 도서관 현장 점검

10-1. 도서관별 현황(개관순)

10-1-1. 청주시립도서관

- 용암동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2003년에 개관함.
- 청주시립도서관 본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좋은 위치에 넓은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도서관 건물을 중규모로 건축하여 종합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임.
- 아파트 밀집 지역 내에 있고, 주위에 학교가 많아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음.
- 시립도서관 분관이 늘어나고, 도서관 주변 아파트 입주 세대가 장년화되면서 도서관 이용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개관시에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장서들이 그대로 있어 장서가 노후화되었고, 자료실내 서가가 밀집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표 66> 청주시립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5년	3,040	1,941	8,961	13,942	171,713	22,975	235,161	429,849
2016년	3,232	2,057	9,401	14,690	133,360	18,684	191,298	343,342
2017년	1,548	1,714	10,042	13,304	142,750	18,743	151,653	313,146
2018년	1,789	1,659	10,050	13,498	169,216	14,336	146,731	330,283
2019년	1,863	1,649	11,017	14,529	172,725	33,604	133,211	339,540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 2021년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되었음. 리모델링 추진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서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10-1-2. 청주기적의도서관

-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MBC 문화방송의 ‘느낌표’ 과 함께 진행한 기적의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에 신청하여 도서관 건립사업이 추진됨. 2004년 7월 15일 개관함.
- 부지는 청주지검 검사장 공관을 시립도서관 부지로 연차적으로 매입한 곳임.
- 도서관 개관 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거쳐 대한충효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 위탁 기간은 3년.
- 위탁법인이 도서관 관련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사, 교육에 한계가 있고, 건물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음. 시립도서관과 교류가 필요함.
- 청주시립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자료실이 잘 갖춰지고, 작은도서관에서도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많이 하여 어린이도서 대출서비스의 양은 꾸준히 줄어들었음.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시설이 낡아 새로운 서비스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어 리모델링이 시급함.

<표 67> 기적의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5년	832	96	1,252	2,180	14,067	1,189	22,952	38,208
2016년	728	69	1,232	2,029	16,435	892	32,985	50,312
2017년	3,125	1,832	7,437	12,394	18,114	35,920	17,021	71,055
2018년	637	80	1,245	1,962	14,954	1,761	49,060	65,775
2019년	6,367	403	12,712	19,482	15,892	1,233	51,042	68,167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10-1-3. 옥산도서관

- 구 청원군에서 북부지역의 문화공간 신설을 위해 옥산면 소재지에 1996년 개관함.
- 옥산면 소재지에 있음에도 주민밀집 거주지와 고속도로로 분절되어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일반 시민의 이용률도 떨어짐.
- 인근 옥산중학교 학생들의 시험공부, 취준생들의 학습공간으로 많이 이용됨. 오송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개관과 함께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었음.
- 옥산면 주민센터 신축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직 관장 외에 외지에서 갓 전입한 사서 1명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표 68〉 옥산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5년	4,994	1,214	8,649	14,857	17,875	4,334	28,390	50,599
2016년	692	96	251	1,039	16,118	4,612	29,652	50,382
2017년	180	501	147	828	4,609	9,658	8,093	22,360
2018년	203	133	1,118	1,454	15,218	6,809	18,022	40,049
2019년	1,686	769	8,793	11,248	8,693	3,569	28,586	40,848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그림 43〉 옥산도서관 외관



〈그림 44〉 옥산도서관 자료실

10-1-4. 청원도서관

- 청주시 율랑동, 오근장동, 내덕1, 2동, 우암동 주민들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이용대상 주민들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적지가 없다고 하여 부지를 확정하였음. 2007년 3월 21일 북부도서관으로 개관하였음.
- 걸어서 오는 주민들 이용은 적고, 조용해서 공부하기에 좋다는 소문으로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련 민원도 많음.
- 자동차 이용자가 많아 북쪽 외곽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 민원이 있음.

〈표 69〉 청원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5년	2,546	1,272	5,094	8,912	87,348	10,947	112,043	210,338
2016년	1,460	610	4,580	6,650	57,583	82,461	114,887	254,931
2017년	24,135	2,853	25,680	52,668	36,889	52,699	86,075	175,663
2018년	1,058	616	5,210	6,884	45,362	9,434	130,758	185,554
2019년	1,238	677	6,288	8,203	51,175	11,552	150,315	213,042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그림 45〉 청원도서관 외관



〈그림 46〉 청원도서관 자료실

10-1-5. 흥덕도서관

- 청주 서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 3월 31일 개관함
- 하북대지역 아파트단지와 상가 지역 중간에 자리잡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주민 이용이 많은 도서관임.

< 표 70> 흥덕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5년	40,534	17,320	34,641	92,495	182,649	58,363	116,731	357,743
2016년	2,510	927	6,862	10,299	138,378	46,529	93,057	277,964
2017년	1,510	1,289	7,739	10,538	169,931	42,626	85,253	297,810
2018년	1,752	1,156	7,868	10,776	78,575	22,150	210,534	311,259
2019년	1,828	1,193	8,687	11,708	39,030	63,324	238,401	340,755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그림 47> 흥덕도서관 외관



<그림 48> 흥덕도서관 자료실

10-1-6. 신울봉어린이도서관

- 토지개발공사에서 복대동 토지구획사업을 하면서 도서관 부지로 구획하여 남겨두었던 부지를 청주시에서 매입하여 도서관을 건축함.
- 당초 의회에서 도서관 부지로서 적정한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인근에 3개 초등학교가 있는 점을 내세워 추진, 2009년 4월 7일에 개관하였음.
- 주변 주택에 장, 노년층 인구가 많고, 젊은 세대는 많지 않음. 대부분 이용자들은 부모가 자동차로 와서 책을 빌려가는 경우임. 전집대출 신청이 많음.

<표 71> 신울봉어린이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5년	10,951	0	16,427	27,378	100,825	0	0	100,825
2016년	10,140	0	13,806	23,946	93,143	0	0	93,143
2017년	9,666	0	12,565	22,231	100,840	0	0	100,840
2018년	826	160	1,476	2,462	94,990	0	0	94,990
2019년	164	61	2,709	2,934	109,988	0	0	109,988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그림 49> 신울봉어린이도서관 외관



<그림 50> 신울봉어린이도서관 자료실

10-1-7. 상당도서관

- 청주시내 동·서·남·북·중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 아래 시내 중심부 도서관으로 추진되었고, 부지는 자동차공업사 자리를 매입하여, 2010년 3월 18일 개관하였음.
- 청주시 구도심에 있어 샐러리맨을 비롯한 사무실 근무자들의 이용이 많음. 주민들이 이용이 적고, 시험 준비생들의 이용이 많음.
- 주변 주거지역은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지역으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한 시니어 교육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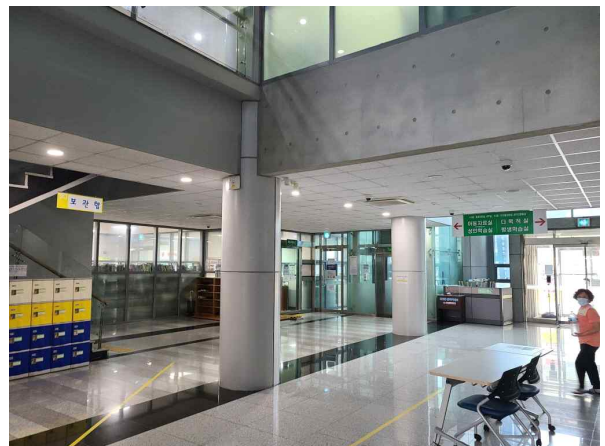
〈표 72〉 상당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5년	1,570	520	4,623	6,713	42,574	7,940	136,382	186,896
2016년	1,582	699	4,442	6,723	41,727	45,900	121,025	208,652
2017년	864	714	4,916	6,494	41,624	62,447	67,723	171,794
2018년	3,790	1,744	14,836	20,370	43,342	64,955	70,096	178,393
2019년	6,798	2,879	37,214	46,891	36,786	10,894	140,345	188,025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그림 51〉 상당도서관 외관



〈그림 52〉 상당도서관 1층 로비

10-1-8. 서원도서관

- 2005년 오제세 국회의원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교부세 5억원을 확보. 오랜 논의 끝에 분평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기로 정하고, 2012년 3월 12일 개관함.
-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핵심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임.
- 좁은 부지에 층수를 높여지었고, 칸막이가 많아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지 못하였음. 리모델링으로 공간 재구성이 필요함.
- 도서관 입지를 살린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 표 73 > 서원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5년	22,896	19,080	34,348	76,324	81,624	58,305	93,283	233,212
2016년	3,748	1,091	4,686	9,525	108,175	9,117	82,962	200,254
2017년	3,801	818	3,994	8,613	115,886	16,341	79,780	212,007
2018년	1,473	1,166	6,444	9,083	53,901	16,563	146,563	217,027
2019년	1,431	1,154	7,422	103,545	49,917	16,288	159,370	225,575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그림 53> 서원도서관 외관



<그림 54> 서원도서관 자료실

10-1-9. 오송도서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국책기관 이전과 기업체 종사자 및 공동주택 입주 등 인구 유입 급증으로 인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고자 오송도서관을 건립을 추진하였음. 오송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건축만 실시하여 2013년 9월 24일 개관함.
-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점은 단점이나, 인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용이 많은 편임. 직장인을 위한 장서 개발, 서비스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표 74〉 오송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5년	1,618	897	2,072	4,587	34,836	21,165	60,635	116,636
2016년	1,003	393	3,445	4,841	33,611	4,290	86,674	124,575
2017년	727	421	3,635	4,783	89,209	17,528	35,053	141,790
2018년	858	475	4,340	5,673	36,239	8,377	112,976	157,592
2019년	940	381	4,628	5,949	39,311	6,971	114,138	160,420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그림 55〉 오송도서관



〈그림 56〉 오송도서관 내부

10-1-10. 오창호수도서관

- 토지공사에서 오창테크노빌 개발시 호텔 부지로 계획되어 오래도록 방치되다,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호텔부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미술관이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2016년 7월 13일 개관함.
- 입지가 좋고, 주차 여건도 좋아 이용자가 많은 편임.
- 건물은 규모가 있으나 실제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음.
- 오창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함. 오창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미술관이 같이 있으나 도서관과 연계된 프로그램 등을 하기 어려운 구조임. 도서관과 미술관이 함께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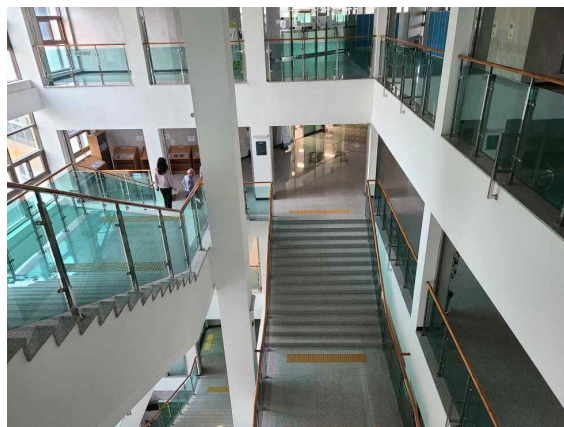
〈표 75〉 오창호수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6년	1,204	646	4,891	6,741	16,811	15,518	96,977	129,306
2017년	1,911	764	6,880	9,555	167,886	16,693	87,635	272,214
2018년	1,716	1,197	8,208	11,121	79,681	13,829	211,495	305,005
2019년	1,866	1,242	9,374	12,482	83,024	15,493	234,493	333,010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그림 57〉 오창호수도서관 외관



〈그림 58〉 오창호수도서관 내부

10-1-11. 오창도서관

-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지역 개발분야 사업으로 진행함. 오창스포츠센터내 부지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목령도서관의 자료를 인수받아 2016년 7월 13일에 개관함.
- 오창읍 구시가지에 있어 스포츠센터, 복지회관, 장터 등 여러 입지가 좋아 농촌형 도서관으로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정작 농민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지 않음.
-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으나, 주민들이 대부분 오창호수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 오창도서관 이용률은 떨어짐.
-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지만, 업무를 추진할 사서 직원이 부족함.

〈표 76〉 오창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6년	412	62	1,055	1,529	16,178	2,396	41,336	59,910
2017년	433	111	1,573	2,117	35,802	5,467	12,740	54,009
2018년	471	121	2,070	2,662	13,997	1,903	48,374	64,274
2019년	615	169	2,844	3,628	20,146	1,874	56,452	78,472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그림 59〉 오창도서관 외관



〈그림 60〉 오창도서관 자료실

10-1-12. 강내도서관

-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지역 개발 분야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월곡리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2016년 10월 19일에 개관하였음.
- 청주와 오송을 잇는 국도 변에 자리잡고 있고,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 의원 등이 있어 일상적인 접근성이 좋음. 인근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음.
- 인근에 교원대학교, 충청대학교 등이 있어 기관간 교류, 협력 사업의 가능성이 많음.

〈표 77〉 강내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6년	1,629	625	1,364	3,618	3,249	5,626	441	9,316
2017년	491	259	1,551	2,301	24,904	44,844	37,121	106,869
2018년	176	22	399	597	34,809	7,108	69,558	111,475
2019년	384	648	2,761	3,793	20,579	27,341	79,134	127,054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그림 61〉 강내도서관 외관



〈그림 62〉 강내도서관 자료실

10-1-13. 금빛도서관

-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금천, 용담, 명암 지역 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 8월 28일에 개관하였음.
-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학교가 많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음.
- 도서관 공간 구성이 비교적 잘 되어 있음. 독서모임, 문화교실 등 적극적인 주민프로그램 개발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매립장 부지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적극 살려 공간을 구성하고, 주민 환경 프로그램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표 78〉 금빛도서관 연도별 대출 현황

	대출자 수				대출권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계
2019년	5,151	1,617	15,986	22,754	46,033	3,151	28,364	77,548



〈그림 63〉 금빛도서관 외관



〈그림 64〉 금빛도서관 자료실



〈그림 65〉 금빛도서관 내부



〈그림 66〉 금빛도서관 내부

10-2. 도서관 현장 사서 그룹 인터뷰(구청별)

- 연구팀은 9월 15일부터 청주시립도서관 13곳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사서들을 만나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음.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을 만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했음.
-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이용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대화 시간도 짧았지만, 도서관 현장을 지키는 사서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듣는 자리였음. 도서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방향은 현장 사서들의 이야기에 모두 녹아 있었음.

10-2-1. 청주시립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23일, 오후 4시

□ 참석자 : <이용자> 이미훈, 김하늘, 정재록

<사서> 유현주팀장, 신숙, 허지은, 이경옥, 이영옥, 엄혜정, 김세영, 이현숙

<이용자 그룹>

- 아이들과 그림책 관련 활동함. 동아리 활동도 함. 봉사동아리. 인형극, 동극 등 공연함. 맨 처음 문화강좌 좋아서 인연이 됨. 이후 동아리로 연결됨. 오래된 책 많아서 아쉬운데 요즘엔 새 책 많이 들어오고 있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주면 좋겠음. 같은 종류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경향 있음.
- 공감 가는 책이 많으면 좋겠음. 장서량보다 읽고 싶은 책이 많으면 좋겠음. 도서관은 문화적인 부분에서 중요함.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이 많아 잘 되어 있음. 과거 행정직이다 했는데 지금은 사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잘 돼있음. 문학 도서를 주로 이용했는데, 지금은 일반교양도서를 봄.
- 시립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들었음. 책읽는 공간이 넓어졌으면 좋겠음.

〈사서 그룹〉

- 통합보존서고를 만들어서 도서관 열람실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면 좋겠음. 사서직 팀장은 금빛과 서원 2개관만 있음.
- 사서도 행정 업무를 다 함. 예산 확보, 집행 다 함. 이용자 서비스 조사하면, 사서가 있는 도서관이 더 높게 나타남. 사서가 시설관리도 다함. 공무직, 임기제 관리, 서무 역할도 포함됨.
- 이동도서관 검토했으나 상호대차 하면서 이동도서관 안 함. 내수에 농촌활성화사업으로 도서관 짓고 있음.
- 지역자료 아카이빙은 정책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음. 지역 작가나 자료 수집해서 납본제를 하려 함.
- 사서 전문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만 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교육은 시에서 예산이 있어야 갈 수 있음.
- 사서들은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음. 아쉬운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음. 조용한 도서관분위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음. 앞으로 공간 혁신이 이뤄지면 좋겠음.
- 직원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서들을 더 힘들게 함. 긍정적인 시선을 봐주면 좋겠음. 조직 내에서 그런 분위기 부족함.



〈그림 67〉 상당도서관 사서 그룹인터뷰



〈그림 68〉 청원도서관 사서 그룹인터뷰

10-2-2. 상당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오후 1시

□ 참석자 : 남미연, 조성실, 정상욱 사서

- 구 도심지라 노년층이 많고, 학교 학생 및 시청직원이 많음. 아이들 및 학부모는 주말에 프로그램 위주로 참가하는 편. 학생들은 주로 학습 열람실을 이용하면 시험기간에 특히 집중됨. 노년층은 주로 신문이나 잡지등을 보는 편. 주변 분들이 주로 이용하나, 시립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의 상태가 좋아서 차로 주로 오시는 편.
- 주차 관련 민원은 많은 편. 주차 면적은 많으나, 주변 사무실 분들이 이용해서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족함 특히 대관 행사와 프로그램이 겹치는 경우 어려움.
-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시는데, 복지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시니어 팀이 공연을 해주시는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다문화가정 관련한 활동 등 주변 환경을 생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음. 또한 구도시 중심점인 부분을 살려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
- 구조적인 문제로 각종 중앙부가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이며, 자료실이 협소함. 비 오면 새기도 함.
- 리모델링을 한다면 1층 공간을 입구부터 자료실처럼 구성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음.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로워지도록.
- 공간이 부족해 오래된 책들은 서고공간으로 올리는 상황. 현재 총수는 13만권. 공동보존 서고개념이 생기면 좋을 듯.
- 사서들의 업무가 행정업무 위주로 진행됨. 통계 데이터 평가 보고 등. 북 큐레이션등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하지만 수서 업무 등을 하기엔 여유가 사실 없음.
- 충북권에서 안 해봤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음. 웹소설 특강 같은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또한 아이들을 위한 역사 수업 등을 진행해보고자 함.
-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적다고 느껴져서, 퇴근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음.
- 사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10-2-3. 금빛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23일

□ 참석자 : 임은상 관장(사서직), 황영주, 장소영, 전장하, 송다운 사서

- 학령인구 많고, 고령화지수도 청주시에서 낮음. 주 대출 연령층은 30~40대와 10대가 많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 많음. 어린이자료실 이용이 많음.
- 기존엔 개관 3~4개월 준비. 금빛은 6개월쯤 준비. 틈나는 대로 검색하고 벤치마킹도 감. 인상 깊은 곳은 교원대 도서관, 충남도서관, 전주 꽃심. 나름대로 노력했음. 개관 준비 기간 6개월 가짐.
- 가로수도서관은 더 예쁘게 나올 것. 공사기간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됐음. 공사를 다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 훼손되는 부분이 생김. 기간도 3개월 밖에 안 줌.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책 사고, 가구 사는 것 밖엔 없음.
- 보통 개관할 때 조직을 늦게 만들어줌. 개관 추진하려면 조직을 미리 만들어 줘야 함.
- 과거에는 공공시설과에서 지어서 넘겨주니 우리 의견 반영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립도서관에 시설팀이 있어 의사 소통이 잘 되고 있음.
- 독서계단에서 취식하거나 소음 민원 있음. 층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 많았음.
- 독서계단 보기에는 이쁘지만 관리 입장에서는 힘들. 책이 분산되니까. 뒤쪽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겠음. 그래도 시민이 만족하면 좋음.
- 2층 3층 명확하지 않다 보니 책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반납된 책은 직원들이 바로 바로 뽑고 있지만 빠른 대처가 안 됨.
- 자유로운 공간이다 보니, 처음엔 소음 관련 민원이 많았음. 이용자들간 자중하자는 의견도 있고 제재에 기분 나쁘다는 의견도 있고, 의견이 갈림.
- 학습실 없다 보니 종합자료실은 소음 민원 있었음. 지금은 별로 없음.
- 점심교대와 저녁 때 교대 어려움이 있음. 시간이 딱 맞게 짜여있다 보니 한 명이 빠지면 자리 메꾸기 어려움. 저녁 6시~10시는 딱 2층 3층 각 1명씩 남아있음.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움.

10-2-4. 오창호수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15일 오후 3시

□ 참석자 : <이용자> 장인숙, 김순희

<사서> 이유진, 정수경, 한영선, 이주화, 장시랑, 임구확, 안현수

<이용자 그룹>

- 만족스러움. 아이와 같이 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함.
- 만족스러우나, 바라는 부분도 많음. 코로나 상황에서 책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 도서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음. 또한 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절안배 등을 고려해 시간대 등 자유로운 선택지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컨벤션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짐.

<사서 그룹>

- 30대, 40~50대 및 유아 비중이 높음. 반대로 청소년 및 20대 비중은 적은 편임.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함. 금빛도서관의 경우 청소년도서관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웹툰 등을 두고 운영 중.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단, 현재 이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
- 건물 규모에 비해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함. 특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하고 있음.
- 민원은 학습실 관련이 많음. 특히 시간 연장 및 소음 관련 (노트북 타자소리)
- 시민들이 도서관을 공부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씁쓸함.
- 건설 당시 사서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공간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데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함.
- 업무 공백 등으로 인해 교육을 들으러 가거나 사서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할 시간이 없다고 봐야함.
- 어린이 독서 교육 및 독서 치료, 놀이 치료 관련 사항을 진행해보고 싶음.
- 도서관이 학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음. 또한 도서관이 층 형태가 아니라 콜로세움 형태같이 해서 낭비되는 공간을 없앨 수 있으면 좋을 듯.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같이 공존하는 도서관을 지향함.
- 가족이 같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음.

- 현 상황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우나, 그런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함
- 시니어 대상 도서관 진행해보고 싶음. 시니어 이용률은 높아지는데, 도서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은 부진하다고 생각함.

10-2-5. 청원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15일 오후 1시

□ 참석자 : 김정미 팀장(행정직), 김주란 사서, 이정연 사서

- 어른들이 많으심. 아이들이 자유롭게 오는 공간은 아닌 편. 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들이 많았음. 기존 학습실로 이용하던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도중 코로나 상황으로 전면 중단된 상황임.
- 학습실을 이용하는 비중은 대부분 취준생이 많음. 이로 인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휴게실도 사실상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고, 도서관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가 강제됨.
- 좋은 공간으로 바꾸고 싶고, 도서관을 보통 도시재생 문화사업 마을 관련된 활동이 도서관을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그 부분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분들임. 필요하지만, 사서의 업무를 수행해주실 수 없으니, 소수의 사서가 사서업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김.
- 진입로가 불편한 부분이 있음. 북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기를 희망함.

10-2-6. 오창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15일 오후 4시

□ 참석자 : 홍정택 관장(행정직), 민혜영 사서, 김미란 사서

- 오창테크노빌 2지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거리상으론 가깝지만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호수도서관으로 가고, 이곳으로 잘 오지는 않음.
- 학습 목적의 이용객은 많으며,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음.
- 민원 사항은 거의 없으며, 엄마들이 어린이책을 대량으로 빌리는 경우는 많으나, 상주하며 책을 읽는 인원은 거의 없음.
- 대출권수를 늘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없어질 수 있는 책이 많아지더라도 차라리 많이 빌릴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음.
- 드라이브 스루는 거의 이용객이 없고, 상호대차는 그나마 있는 편임.
-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등을 찾아가서 교육 등을 진행하기도 했음. 근본적으로 이용객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음. 이용객이 적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도서관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음. 어르신과 아이들이 만나서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외국인 노동자는 많으나, 다문화가정은 별로 없음. (공장 지대의 영향)

10-2-7. 오송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 참석자 : 사서 : 김연화, 음수현, 박선하, 장미경

이용자 : 이희성, 신승은, 이용자3

< 이용자 그룹 >

- 기존 이용하던 도서관은 문화 교실이 많아서 잘 이용했는데, 본 도서관은 거의 없음. 주변 인구 특성상 젊은 엄마를 제외한 다른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은 듬. 어학 관련 문화교실이 생겼으면 함.
- 거리가 좀 먼 것 외에는 불편함을 잘 모르겠음.
- 대출시 한번에 여러 권을 빌릴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함.
-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함. 이를 통해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힐 수 있다고 생각.
- 학습실을 통해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너무 큼. 학습실을 없애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 걸어들 수 있어서 좋았음 (15분) 문화교실은 아이들 위주로 진행되는 게 많아서 잘 못했지만, 복지관에서 강좌 듣고, 여기서 책을 빌리는 식으로 활용함.
- 보통은 차를 얻어 타고 옴.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는 가까움.
- 첫 아이가 8살인데, 1살 때부터 계속 이용 중임. 프로그램 피드백이 좋음. 강사님 섭외도 잘 진행됨.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잘 배려해 줌. 아이 데리고 유모차 끌고 오긴 어려운 위치. 주로 차로 옴. 상대적으로 외곽이라 문화시설이 잘 안 들어 옴. 복지관 및 도서관이 이 역할을 잘 수행해 줄 수 있으면 좋겠음. 외부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 같은 것도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내부 공간 문화교실에서 진행되는 경우 홍보가 잘 안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있음.

< 사서 그룹 >

- 이용자들은 주로 차를 끌고 많이 옴(프로그램 때문). 세종에서도 옴. 주변 관공서가 많아서 관공서 분들도 많이 오는 편임. 계층이 다양함. 주로 점심시간에 관공서 분들이 이용함. 야간에도 이용하기도 함.
- 학습실이 다른 곳에 비해 커서 여유로움. 민원 또한 별로 없음.

- 대규모 행사를 위한 공연장이 없어서 주로 복지관을 대여함.
- 보존서고가 지하에 있으나, 만족스럽지 않음. 청주시 공동 보존서고를 만들고 상호대차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함.
- 도서관이 많이 늘어났지만, 사서는 그만큼 충원이 되지 않아 오히려 사서 숫자는 줄어든 셈. 시립도서관 한 관만 있을 때 사서 13명이었는데, 현재에도 40여명 밖에 되지 않음. 업무량은 훨씬 많아짐.
- 학습실을 없애고, 공간을 확장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중임.

10-2-8. 흥덕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오후 4시

□ 참석자 : 이용찬 팀장, 최준혜 사서, 김미영 사서, 강소희 사서

- 주변 흥덕고 진흥초, 증안초가 있고 공원이 근처에 있음. 거주 인원 및 환경이 좋아서 이용객이 높은 편임. 젊은 엄마가 많음 30~40대 엄마 및 아이들의 이용이 가장 많음. 프로그램 숫자가 많아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이용객도 다수임.
- 학습실 이용률이 높아서 부득이하게 두고 있으나, 옆에 문화교실이 있어서 소음 관련 민원이 자주 들어옴. 총 40석. 종합자료실은 공간이 별로 없음.
- 학습실 민원은 주로 시설 자체보다 학습실 이용객 간의 마찰이 주된 민원임.
-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편임. 10년 이상 바뀌지 않은 책상, 소파 등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서가 숫자가 부족한데 서가의 보충이 잘 되지 않음. 가구를 조달 형식으로만 받아야 함. 각 도서관에 맞는 서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방법이 필요함. 그래서 맞는 형태의 서가를 들여오기가 어려움.
- 공동 보존서고 개념에 대해 논의되고 있었음. 이미 상호대차서비스로 하루 정도 기다리면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좋다고 생각함.
- 메이커스페이스 특화 도서관이라 관련 준비를 했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
- 자료실이 포화상태라 효율적으로 보존서고 등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 이용자가 안 된다고 하는 서비스들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음.

10-2-9. 강내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22일 오후1시

□ 참석자 : 이세리, 장경 사서

-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오시고, 연령대가 생각보다 낮음. (젊은 부부)
- 아동 프로그램하기 좋음. 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방과후에 많이 와서 이용함. 중학교 (미호중학교) 교원대 부속고도 옴. 봉사활동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옴.
- 학습실이 40석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시간당 10~15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학습실을 줄이고 문화교실로 활용하고 있음. 크기를 키운 후 강연 규모를 키워 진행 중. 학습실 관련 민원이 있었으나 잘 응대함. 오히려 1층에 방재실이 있고, 학습실이 바로 옆으로 옮겨짐에 따라 관리가 편한 편.
- 시니어분들은 몇 분이 잡지나 신문을 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별로 없음.
- 장서는 8만 7천권 정도인데, 공간이 좁아 여유가 없음.
- 간행물실 안에 향토자료실이 있고 서가 2칸 정도만 활용되고 있음. 정책 및 사서팀에서 말씀해주시면 구입 및 발간되는 것들을 수시로 구입하고 있으나, 아직 도서에 한정되어 수집하고 있어서, 팜플렛 등 지역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 교원 대학 사서 2분이 오셔서 홍보하시면서 교류 요청. 장기적으로 고려 중.
- 제작년 초등학교 찾아가는 사업 추진하였음. 또한 교과연계도서 구입해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 진행. 오리엔테이션도 요청이 들어오면 하긴 하나 잘 없음.
- 도서관별로 특화주제가 있는데, 강내는 생태와 역사 특화임. 자연농원 관련이 안 됨. 내년도 사업계획 올릴 때 2층의 나무데크로 활동 공간을 만들고 싶음.



〈그림 69〉 강내도서관 사서 그룹 인터뷰

10-2-10. 옥산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 참석자 : 옥산도서관 김철환 팀장, 송지아 사서

- 원래부터 있던 도서관을 리모델링. 중심지와 떨어진 외곽지역 및 농촌지역. 도서관 이용 시설은 학생, 문화강좌 수강생이 대부분임.
- 2020년 12월 달에 공모 사업이 있음. 주민센터를 복합건물로 4층 건물을 짓기 위해 공모에 신청한 상태임. 선정될 시 그곳의 3층과 4층을 도서관으로 사용할 계획임. 면적 및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직원은 팀장 한명에 직원 한명인데, 최소 직원이 2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별개로 농촌지역이고, 대중교통도 불편하여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짐.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혀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아쉬움
- 옥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으나 걸어오기 힘든 거리이고,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오창호수도서관으로 많이 감.
- 근처의 젊은 엄마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많이 옴. 인문학 강좌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음. 별개로 농촌지도소 같은 개념으로 특화 및 문화강좌를 여는건 어떨지에 대해 고민 중임.
- 현재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하루 10명 정도가 30~40권 정도 요청 들어옴.
-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자 텃밭 같은걸 실외 테라스에 해서 가족이 오거나 수업을 연계해서 해서 원예로 키우는 수업을 시행해보고 싶음.



〈그림 70〉 옥산도서관 직원 그룹 인터뷰

10-2-11. 신울봉어린이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오후 1시

□ 참석자 : 정유나 사서

- 주로 차를 타고 주로 오시고, 주변 사람들도 오긴 하지만 조금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음. 애초에 주변 아이들이 숫자가 부족함.
- 장서는 약 8만권 있음. 여유 공간이 사실상 없음
- 전집 대출 수요가 많음. 하루 일과중 행정일과의 비율이 높고, 어린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기회가 나지 않음. 어르신들에게는 신문 및 잡지를 제공하고 있음.
-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어도 유모차 음악회 같이 어린이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음.
- 이용자는 대부분 다른 동네 분들임. 동네 분들 비중은 거의 없음.
-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인력 문제가 큼. 청원경찰이 없고 자료실에도 한 명 밖에 없어서 서비스를 사실상 제공하기 어려움.



〈그림 71〉 신울봉어린이도서관 사서 그룹 인터뷰

10-2-12. 서원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23일

□ 참석자 : 정광섭(팀장, 사서직), 김혜림, 이수현(사서)

- 시립도서관 중 3~4번째 이용자 많음. 위치는 좋지만 시설이 그만큼 좋지 않음. 장서수가 12만권 넘었는데, 포화상태임. 리모델링 필요도 있음.
- 학습실 별도로 운영 안 하고, 1층 가족어울림실이 학습실이었음. 학습실 개설 민원은 그다지 없음.
-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이용이 많음. 정기간행물실도 이용율 높은 편임, 주로 노인들이 정기간행물실 이용 많이 함.
- 신혼부부가 들어오고, 아이 크면 나감. 그리고 다시 신혼부부들이 들어옴. 주거환경이 좋음.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 많음. 근처에 학교가 많음. 어린 아이 키우는 부모는 학교 보내기 좋다고 함.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입력할 때 대출권수와 대출자수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잡히는 대로 입력함. 이용자수는 대출자수에 2.5배 곱함.
- 분평동 밖에서도 찾아오는 사람 꽤 있음. 산남동, 수곡동에서 이용자가 있음.
- 당초에 지을 때부터 도서관에 맞게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데 역순이다 보니까 잘못됨.: 1인당 장서량은 시립에서 총괄함. 청주시 전체 장서량은 전국평균보다 떨어짐. 책을 구입하다 보면 보존서고 없다 보니, 자료실에 쌓임.
- 청소년은 주로 시험기간에 공부하러 옴, 자료실에서 공부하게 함.
- 청소년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청소년은 도서관 안 옴. 매력적인 프로그램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
- 그래서 리모델링 국비 지원 신청했음. 자료실 벽 없애고 1층에서 대출반납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음. 지역구 국회의원이 희망함.
- 인력이 더 충원되면 좋겠음.
- 코로나로 비대면 프로그램 하는데, 장비나 시설이 좋지 않음. 1층 다목적실 장비가 좋지 않음. 그런 장비 예산 매년 올리는데 삭감됨. 웹캠, 마이크, 노트북 등 새로 필요함.

10-2-13. 청주기적의도서관

□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오전 10시

□ 참석자 : 민경록 관장, 이지연 사서, 김운정 행정팀장, 이미소 사서

- 이용자가 줄고 있는 추세임. 청주시내에 도서관이 2곳에서 13곳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자체적으로 분산된 것이 크다고 생각함.
- 특히 서원도서관이 생기면서 이용자수가 크게 줄. 단, 기존 취지가 근처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음.
- 도서관에 진입 부분에 차선을 끊어서 비보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번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음.
- 인근에 임대아파트가 많아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중임. 주말에 다문화가정 혹은 소외계층 아이들 수업 및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교육봉사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대면서비스 -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주는 도서관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함. 이런 방식이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또한 시립이 할 수 없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았는데, 행정적인 부분 등을 시립의 시스템에 맞추어야 하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음. 완전히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던가, 아니면 직영으로 되어 예산 등의 문제 해결로 시설이 개선되길 바람.
- 현재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 시스템이 모두 시립 시스템에 통합됨.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출기한 등을 자유롭게 했던 부분 등을 시립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자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음. 시설의 경우, 도서관의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되는 만큼, 공간의 변화 또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하려면 기존 시설들의 보완이 필요함. 특히 주 출입구가 굉장히 협소하고 낙후된 등 문제가 있음. 사업의 경우, 기존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기존 도서관들도 진행함에 따라, 규모 등의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예산 지원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작은 공간이라도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동화구연 같은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1층이 로비로 있는데, 현재 리사이클링 코너로 쓰고 있는데,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었으면 함. 공간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아쉬움. 장서 수는 상호대차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또한 단체대출 운영 중임.

-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형식으로 받고 있음. 임금의 경우 2015년도까지 동결되었다가, 이후 조금씩이라도 연도에 따라 늘어나는 식임.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50% 정도를 차지하도록 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나, 굉장히 어려운 조건임. 현재에도 50%가 넘는 상황임.
- 홈페이지 자체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개인정보 관리 등을 위해 시립 도서관 홈페이지 시스템을 따르고 있음.



그림 72 청주기적의도서관 사서 그룹 인터뷰

10-3. 중간보고회 의견 정리

□ 일 시 : 2020년 10월 19일 오후 2시

□ 장 소 :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

□ 참석자 :

- ,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격려사)

- , 시의원 : 유영경, 박용현, 정우철, 남일현, 김용규, 최동식, 박노학, 박완희, 유광옥

- , 시립도서관 :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미우 오송도서관장 등 사서 20여명

- , 작은도서관 : 이나영(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정책위원장)

- , 연구진 : 윤송현, 안찬수, 서동민



〈그림 73〉 용역 중간보고회 모습

■ 참석자 주요 의견

- 박용현 의원 : 청주 공공도서관은 대체로 시내권에 밀집되어 있다. 먼 지역 도서관 서비스 확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유영경 의원 : 공립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파주시는 먼 지역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작은도서관을 함께 설치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을 확충하고 있다. 청주시 행정에서 도서관이 주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 현재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속인 도서관정책팀을 본청 소속으로 두는 방안 등 조직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윤순진 본부장 : 청주시립도서관 역사가 짧아 과제가 많다. 도서관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이 여전히 70~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사서 확충 필요성에 대해 행정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도서관이 시민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미우 관장 : 정책팀이 시 직속기관에 있다면 더 힘 있게 될 것이다. 발표 내용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다. 앞으로도 도서관 발전에 관심 가져주시면 도서관이 발전할 것이다.
- 최동식 의원 : 앞으로의 도서관은 책만 보고 공부하던 도서관이 아닌, 열린 도서관 형태로 가야 한다. 열린 도서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 박은향 국장 : 작년에 싱가포르 도서관 벤치마킹 다녀왔다. 싱가포르는 대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계획적으로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청주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시계획이나 아파트 단지를 신축할 때 도서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나양 위원장 : 청주에는 민간 작은도서관들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청주시의 바람직한 도서관문화를 만들기 위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함께 연구하면 좋겠다. 작은도서관에서도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제안하겠다.
- 유현주 팀장 : 보존서고 필요성은 가장 통감하는 부분이다. 당장 내년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추진하면, 장서를 옮길 공간이 없어 고민이다.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 박노학 의원 : 청주시청사나 구 청원군청사 등 관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보존서고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보존서고가 필요하다고만 말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직지의 가치를 살리는 ‘직지도서관’을 건립하면서 통합 보존서고까지 같이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서직 증원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용규 의원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의회의 연구용역은 본부가 세우는 큰 계획에 양념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용역에서 답을 줄 것처럼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소수직렬은 본래 역할을 다 할 때 그 필요성이 더 부각된다. 사서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사서 인력 충원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도시계획이나 지구 단위 개발계획을 세울 때 도서관 부서에서 도서관 입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 이경옥 사서 : 보존서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신축은 부담이 커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시청사 신축할 때 상당도서관을 시청사로 이전하고 상당도서관을 보존서고로 운영하면 어떨까?

10-4. 최종보고회 의견 정리

□ 일 시 : 2020년 12월 1일 오후 4시

□ 장 소 : 청주시의회 자료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하여 진행)

□ 참석자 :

-, 시의원 : 유영경, 박용현, 정우철, 남일현, 김용규, 최동식, 박노학, 유광옥

-, 시립도서관 : 김미수 시립도서관장, 김기원 시립도서관 정책팀장



■ 참석자 주요 의견

- 남일현 의원 : 연구보고서가 기대 이상임. 10개의 제안이 모범적인 안으로, 백년대계를 세우듯, 청주시 도서관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음.
- 박용현 의원 : 이번 용역이 처음인데, 성과가 좋다고 봄.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되도록 노력하고, 연구 성과가 도서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겠음.
- 박노학 의원 : 중간보고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연구보고에 반영해주었음. 청주를 대표할 직지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겠음.
- 김미수 관장 : 내년부터 3년간 청주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결정되어 있음.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김기원 팀장 : 도서관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도서관 리모델링은 순차

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올해 청원도서관 리모델링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장서 특성화는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음. 라키비움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지역자료를 별도로 수집해 나갈 예정임. 자료관리위원회는 이전에 입찰을 통해 자료구입을 할 때는 자주 열렸으나, 최근 지역 서점에서 수시로 자료를 구입하면서 열지 못하고 있음. 자료 제적과 관련하여 조례에도 규정이 있지만,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분류되어 있고, 책은 보존기한이 영구로 되어 있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 대출후 장기간 반환되지 않는 자료, 망실본, 파손본 위주로 제적을 하고 있음.

- 김용규 의원 : 연구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음. 앞으로 도서관 발전의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됨. 연구보고서를 잘 반영해서 도서관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함.
- 최동식 의원 : 면단위 도서관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옥산도서관은 매우 열악하다. 보고서가 충실해서 도서관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도사모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비교견학으로 다녀왔던 충남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청주에도 만들어지면 좋겠음. 직지도서관을 기대함.
- 박완희 의원 : 공공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함. 맹꽁이도서관, 두꺼비도서관이 만들어질 때 현장에서 같이 논의했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지역공동체와 도서관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람. 산남동의 경우 작은도서관이 활발하고,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고 있음.
- 유영경 의원 : 우리 지역의 도서관에 관해 꿈을 꾸어야 함. 청주의 대표도서관을 멋지게 만드는데, 도사모의 연구용역이 토대가 되길 바람.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표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좋겠음. 행정,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곳이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 도서관이 섬처럼 책만 관리하는 공간이 되어 있어 아쉬움. 이 연구보고서는 ISBN 신청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관련된 연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함. 책 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고, 영구 보존이라 제적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 시 차원에서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도서관측에서 검토해주길 바람.

- 이재숙 의원 : 이 용역은 기초의회에서는 처음 한 것으로 보임. 처음 준비 과정, 용역 발주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낌.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청주시가 더 좋은 문화도시가 되면 좋겠음. 공무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서관과 관계없이 채용한 기간제 요원이 공무원으로 전환된 케이스를 알고 있음. 도서관에서 공무직을 채용하더라도 도서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는 노력을 해야 함. 시립도서관에서 여러 정책 제안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11. 청주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 제안 1 〉 청주를 대표할 직지도서관을 만들자 !

〈 제안 2 〉 청주 도심에 청소년도서관을 만들자 !

〈 제안 3 〉 시립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추진 !

〈 제안 4 〉 열람실 자료를 반으로 줄이기 !

〈 제안 5 〉 사서들이 움직이는 도서관 !

〈 제안 6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도서관 !

〈 제안 7 〉 라키비움 만들기 !

〈 제안 8 〉 디지털 도서관서비스 구축 !

〈 제안 9 〉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개선 !

〈 제안 10 〉 고령화 시대 도서관서비스 구축 !

〈 제안 11 〉 도서 대출을 확대하자 !

< 제안 1 > 청주를 대표할 직지도서관을 만들자 !

- 직지의 도시, 기록문화의 도시 이미지를 살린 세계적인 도서관 건설.
- 고인쇄에서 반도체까지,
- IT에서 앞서가는 첨단 도서관 시스템 도입.
- 북봇(Book-bot)이 관리하는 최첨단 통합보존서고 설치
- 운천 · 신봉 · 봉명2 · 강서2,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1】 접근성이 우수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방안2】 10,000㎡ 이상의 대형, 최첨단 IT기반 복합문화공간

< 제안 2 > 청주 도심에 청소년도서관을 만들자 !

-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필요
- 도서관 기반의 종합적인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 ※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센터, 노원 공릉청소년문화센터, 전주 꽃심도서관
우주로1216
-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조성
- 메이커스페이스, 음악 공간, 창작 공간 등 조성
- 분산된 청소년 문화 활동, 청년 지원 사업 통합

【방안1】 성안길에 휴업중인 롯데시네마 성안길점 전층 임대 리모델링

【방안2】 청소년광장과 연결된 중앙시장 북동 1-2층 임대 리모델링

< 제안 3 > 시립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추진 !

- 시험공부하는 독서실, 자료보관소 → 열린공간, 복합문화공간으로
- 정부의 생활SOC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중
- 시립도서관은 2021년 리모델링 확정,
※ 옥산도서관 정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신청중

【과제】 개관 후 10년 이상 된 도서관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추진

- 기적의도서관(2004), 청원도서관(2007), 흥덕도서관(2009), 상당도서관(2010)

【과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 리모델링시 총괄계획가 선임 시민참여, 도서관 사서 의견 수렴

【과제】 개성 있는 가구 설치

➡ 도서관 공간 개선으로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확대



< 제안 4 > 열람실 자료를 반으로 줄이기 !

- 도서관의 기본인 장서 관리부터 충실하기.
- 자료 수장고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공간으로 변신.
- 이용자(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서점 같은 분위기의 열람실 만들기

【과제1】 도서관별 장서 관리 목표 세우기

※ 도서관 열람실 규모에 맞춰 도서관 장서 관리 목표를 세워야 함.

【과제2】 장서관리 매뉴얼 만들기

※ 신규 장서 수서 매뉴얼, 희망도서, 책값보상제 등에 대한 관리 매뉴얼 만들기

【과제3】 자료관리위원회 활성화하기

※ 자료관리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를 정례화하여 참여 확대.

【과제4】 도서관별 특성화 진행하기

※ 도서관별 특성화를 개선, 장서구입부터 프로그램까지 특성화 추진.

【과제5】 정기간행물 관리 개선

※ 정기간행물 구독 확대, 과월호 관리 규정 만들기, 지역 정기간행물 보존.

【과제6】 자료 제적 적극 실시

※ 오래된 실용서들, 훼손되어 이용이 어려운 자료들을 적극 제적

【과제7】 통합보존서고 만들기

※ 이용이 적은 자료는 통합보존서고로 관리, 통합검색, 상호대차서비스 대응.

➡ 서점같은 열람실, 읽고 싶은 책이 많은 열람실

< 제안 5 > 사서들이 움직이는 도서관 !

- 도서관은 한직, 열람실은 지키고 있으면 되는 곳이라는 인식 지양!
- 도서관 서비스는 교육을 받은 사서들에 의해 이루어짐.

【과제 1】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임

- 청주시 직영 12개 도서관 중 사서직은 3명뿐. 소규모일수록 사서직 관장이 필요.

【과제 2】 정규직 사서를 우선적으로 확보

- 도서관 기간제 근무자 공무원 전환으로 총액인건비 변동이 크지 않음.

【과제 3】 도서관 공무직을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선발 / 교체

- 공무직중 도서관 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보조사서로 선발.

【과제 4】 도서관 직무 교육 확대

- 사서직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교육 지원 확대
- 시설직, 전산직, 공무직 대상 연수 교육 시행

➡ 도서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

< 제2안6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도서관 !

-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
-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지역 내 복지 기관을 적극 연계하여 독서 활동 지원.

【과제 1】 작은도서관 지원 개선

- 세분화된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운영비 지원을 확대

【과제 2】 교육청도서관과 교류, 상호대차

- 교육청도서관 3개관과 협력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과제 3】 대학도서관과 교류 협력

- 6개 대학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 자료를 개방하도록 협력

【과제 4】 무지개도서관과 협력

- 무지개도서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는 복지정책이 아닌 도서관 정보 정책으로 통합 필요.

【과제 5】 소외 계층 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관 협력

- 노인복지관 도서 지원,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도서관(청주건강가족지원센터내 다문화지원)과 협력.

➡ 기존 기관을 도서관 중심으로 연계, 서비스 확대

< 제안 7 > 라키비움 만들기 !

- 자료 수집, 보존, 공유라는 도서관의 기본 기능을 수행
-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통합인 라키비움(Lakivium)
- 멸실되어 가는 민간 자료 수집, 관리 중요.
- 지역에서 발행된 연속간행물 자료 수집 시급.

【과제 1】 각 도서관 별로 지역 자료 수집 확대

- 소극적인 접수자료 보관소가 아닌 적극적인 지역자료 수집 노력
- 관내 지역의 기록자료 수집, 전시

【과제 2】 거점 도서관에 라키비움 공간 마련

- 중규모 이상의 거점 도서관에 라키비움 공간 마련.

【과제 3】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민간기록물에 수집, 관리,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조례제정이 잇따름.
- 청주시는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록 등이 대부분이고, 민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한적임.

➡ 민간기록물의 수집, 관리가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 제안 8 > 디지털 도서관서비스 구축 !

-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유통의 시대가 되었음.
- 자료의 관리, 정보 제공, 이용자와 소통, 서비스 제공 등에서 IT기술을 폭넓게 도입하고, 활용을 확대해야 함.

【과제 1】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이버도서관으로 개편

-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이버도서관으로 만들어 정보 제공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

【과제 2】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에 적합한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과제 3】 스마트폰 앱 개발

- 스마트폰 앱 개발로 사이버도서관 이용 편의 확대, 이용자 서비스 증대

【과제 4】 SNS 계정을 활용한 소통 확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한 이용자 소통, 서비스 확대

【과제 5】 디지털 자료 구입 확대

- 전자도서 구입 확대, 전자도서 이용을 위한 전자기기 비치, 관내 대여.

【과제 6】 개인별 도서추천시스템, 자동반납처리기 도입

- ICT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도서 추천시스템 도입
- 자동반납처리 시스템 도입

➡ 앞서가는 도서관 시스템 구축, 서비스 증대

< 제안 9 >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개선 !

-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어린이도서 대출을 확대.
- 어린이도서 대출을 도서관 전체 도서 대출의 50%까지 확대.

【과제 1】 새로운 차원의 어린이전문도서관 개관

- 신울봉어린이도서관은 기능 전환이 바람직.
- 도서관 어린이자료실과 서비스가 다른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이전 개관 필요.

【과제 2】 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 17년째 접어든 기적의 도서관 시설 개선 필요. 새로운 역할과 서비스 필요.

【과제 3】 북스타트 사업 복귀

- 청주시 독자적인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에 따른 업무 부담 해소
- 문체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업 참여.
- 국제적인 연대사업으로 복귀,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 혜택 공유.

【과제 4】 어린이자료실 전담 사서 육성

- 어린이 자료실 장서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할 전담 사서 필요.

➡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

< 제안 10 > 고령화 시대 도서관서비스 구축 !

- 청주시 노인인구 비율은 13.2%, 행정동별로 20% 이상인 곳이 많음.
- 노인들을 위한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개발이 필요.

【과제 1】 시니어그룹을 위한 도서관 환경 구성

- 대활자본 장서 확대, 노인에게 편리한 공간 및 가구.

【과제 2】 디지털 리터러시 - 컴퓨터, 인터넷 교육

- 컴퓨터 사용 교육,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활용 교육.

【과제 3】 스마트폰 이용 교육

- 스마트폰 사용을 안내. 정보 검색,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제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 넘치는 정보에 대한 비판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 **고령화시대 시니어 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 제안 11 > 도서 대출을 확대하자

-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회원카드가 있어야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출을 도서관별로 5권으로 제한하고 있음.

【과제 1】 회원카드가 없어도 회원 확인만 되면 대출할 수 있게!

- 21세기 IT강국에서 회원카드가 있어야 하다니. 회원카드가 아니라 회원등록으로 바꾸고, 회원 확인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과제 2】 대출 규정을 최대한 확대

- 도서관별로 5권으로 하여, 다른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최대 대출권수를 늘려놓는 것은 대출활성화와는 무관함.
- 일반서적은 최대 10권, 어린이그림책은 20권으로 대출을 확대.
- 어린이책 전집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도서 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대출 제한을 확대!

청주시립도서관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

2020년 12월 1일 발행

비매품

연구편집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서울 종로구 동숭3길 40, 2층)

발행 |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